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연구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강명숙(배재대학교 · 교직부 교수)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3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4
II.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분석	7
1. 학부모 설문조사 개요	9
2.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11
III.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35
1. 교사 설문조사 개요	37
2. 교사 설문조사 결과	39
IV. 학부모와 교사 집단 비교분석	65
1.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67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인식	75
3.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79
V. 결 론	83
1. 요약	85
2. 결론	90
참고문헌	95
부 록	99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101
2. 교사 대상 설문지	107
3. 전문가 세미나 토론문	112

표 목차

〈표 I-1〉 학교 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내용	5
〈표 II-1〉 조사대상 학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9
〈표 II-2〉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	11
〈표 II-3〉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14
〈표 II-4〉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16
〈표 II-5〉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표 II-6〉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20
〈표 II-7〉 교사의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	21
〈표 II-8〉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22
〈표 II-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23
〈표 II-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25
〈표 II-11〉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	26
〈표 II-12〉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및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응답자 반응 비교	28
〈표 II-13〉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반응 빈도 및 평균	29
〈표 II-14〉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다- 반응 평균 집단간 차이	31
〈표 II-15〉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33
〈표 III-1〉 분석대상 교사의 인구학적 현황	37
〈표 III-2〉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에 대한 의견-집단별 평균 및 빈도 분석	39
〈표 III-3〉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42
〈표 III-4〉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44
〈표 III-5〉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45

〈표 Ⅲ-6〉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47
〈표 Ⅲ-7〉 교사의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	48
〈표 Ⅲ-8〉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50
〈표 Ⅲ-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51
〈표 Ⅲ-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53
〈표 Ⅲ-11〉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	54
〈표 Ⅲ-12〉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및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응답자 반응 비교	56
〈표 Ⅲ-13〉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반응 빈도 및 평균	57
〈표 Ⅲ-14〉 우리학교 학생들은 서로 친하고 사이좋게 지낸다-집단별 평균 분석	59
〈표 Ⅲ-15〉 우리학교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와 학생 지도권을 존중한다-집단별 평균분석	59
〈표 Ⅲ-16〉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관계에 대한 학교급별 평균 차이	60
〈표 Ⅲ-17〉 학생 인권 이해-집단별 평균	62
〈표 Ⅲ-18〉 학생 인권 제한 가능 여부 -집단별 평균	62
〈표 Ⅲ-19〉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63
〈표 IV-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68
〈표 IV-2〉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69
〈표 IV-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0
〈표 IV-4〉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1
〈표 IV-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3
〈표 IV-6〉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4
〈표 IV-7〉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6
〈표 IV-8〉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	80

그림 목차

【그림 Ⅱ-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	13
【그림 Ⅱ-2】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17
【그림 Ⅱ-3】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20
【그림 Ⅱ-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26
【그림 Ⅱ-5】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34
【그림 Ⅲ-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	41
【그림 Ⅲ-2】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45
【그림 Ⅲ-3】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48
【그림 Ⅲ-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53
【그림 Ⅲ-5】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64
【그림 Ⅳ-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68
【그림 Ⅳ-2】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69
【그림 Ⅳ-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0
【그림 Ⅳ-4】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2
【그림 Ⅳ-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3
【그림 Ⅳ-6】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5
【그림 Ⅳ-7】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77
【그림 Ⅳ-8】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81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 등이 증대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경찰, 교원단체 등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학교 폭력 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줄이는 특효약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결연한 문제해결 의지를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한 우울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 대책의 적절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학교폭력을 대하는 접근방식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현상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와 연관시키려는 논의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 여부를 떠나서 근래에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특별히 학교폭력을 법적 조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학교폭력을 학생인권 강화 및 교권의 추락과 연관시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의 심각화는 학생인권 강화로 인해 교권 좁게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약화되어, 교사의 책임 있는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 즉, 교사의 교육적 지도력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는 주장이다. 반면 학교 폭력은 학생인권이 강화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 및 권리가 향상된다면 예방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역할 수행 및 권리 갈등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사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또는 학부모,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사이에 상호간의 역할, 권한, 책임의 범위, 권리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대처 및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증착되면서 2차적 폭력이나 피해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교육공동체구성원 상호간의 역할 수행, 권위 및 권리의 갈등과 연결된다고 가정하고, 학교폭력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공동체적 문화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학교폭력과 학교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학교의 공동체적 문화 구축과 회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공동체적 문화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상호간의 신뢰관계, 역할과 권한에 대한 기대, 권리에 대한 이해 등에 현재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 및 학교문화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인식 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로 갈등, 충돌하기 쉬운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양 집단의 인식 격차 혹은 양 집단 내의 인식을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체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적 학교 문화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 설문조사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각각 500여명 규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우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 학교문화,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문헌자료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설문지 조사내용은 다음 <표 I-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1 학교 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내용

영역	설문내용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영향 요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	
학교문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	학생상호관계
		학생·학부모의 교사 존중
		교사의 학생·학부모 존중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학교폭력의 관계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학생인권과 교사·학생 관계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
		학교구성원의 권리 갈등
	바람직한 학교문화상	
	폭력없는 학교문화 형성 위한 정책 과제	

2) 전문가세미나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분석하고 교사, 학부모, 정부당국관계자가 모여 그 의미와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2012년 8월 10일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현장의 상담사 등이 참여하여 조사결과 및 대처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제 2 장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부모 설문조사 개요
2.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제 2 장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부모 설문조사 개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문화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2012년 6월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초·중·고 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본은 2011년 시도별 초·중·고 학생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층화 후 무작위 추출하였고,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미리 추출된 응답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응답 받는 방법(Computer Aided Web Interview)으로 실시하였다.

학부모 응답자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표 II-1>과 같다. 참고로 학교급별 지역별 추출 표본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1 조사대상 학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응답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00)	100.0
성별	남	(263)	52.6
	여	(237)	47.4
지역별	서울	(88)	17.6
	부산	(31)	6.2
	대구	(27)	5.4
	인천	(28)	5.6
	광주	(18)	3.6
	대전	(17)	3.4
	울산	(13)	2.6
	경기	(122)	24.4
	강원	(15)	3.0
	충북	(16)	3.2
	충남	(21)	4.2

지역별	전북	(20)	4.0
	전남	(18)	3.6
	경북	(25)	5.0
	경남	(35)	7.0
	제주	(6)	1.2
권역별	수도권	(238)	47.6
	충청권	(54)	10.8
	영남권	(131)	26.2
	호남권	(56)	11.2
	강원제주권	(21)	4.2
학교급별	초등학교	(157)	31.4
	중학교	(170)	34.0
	고등학교	(173)	34.6
학교유형별	남녀공학	(374)	74.8
	남학교	(64)	12.8
	여학교	(62)	12.4
설립형태별	국공립	(375)	75.0
	사립	(125)	25.0
인권조례 실시여부	실시	(228)	45.6
	비실시	(272)	54.4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학부모가 263명이고, 여자 학부모는 237명으로 남자 학부모인 아버지 쪽이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의 경우 지역별 층화 추출 표본수와 응답 사례 수에 큰 차이가 없어 지역별 특성을 권역별로 그리고 인권조례 실시지역(서울, 경기, 광주)과 비실시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봐도 표집대상들이 해당 지역의 지역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31.4%, 중학교가 34.0%, 고등학교 34.6%를 차지하고 있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가 과대 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첫째 자녀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표집상의 불균형 문제가 통계 분석 결과에 오차를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립유형, 설립형태와 관련된 분석결과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남녀공학 및 남학교, 여학교의 비율 및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과는 차이가 있어 표집 오차를 크게 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설립 유형 간 혹은 설립형태 차이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1)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1)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

〈표 II-2〉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반응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배경 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척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토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집단별 인식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1로, ‘매우 심각하다’를 5로 입력하여 집단별 평균을 알아보았다.

표 II-2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

(단위 : %)

구분		평균값	빈도 분석 결과					X ² (유의확률)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전 체		3.73	17.8	47.0	26.0	8.4	0.8	5.275 (0.260)
성별	남	3.68	16.3	47.5	25.1	9.5	1.5	
	여	3.78	19.4	46.4	27.0	7.2	0.0	61.322 (0.428)
지역별	서울	3.81	21.6	46.6	23.9	6.8	1.1	
	부산	3.87	25.8	41.9	25.8	6.5	0.0	
	대구	3.59	14.8	44.4	29.6	7.4	3.7	
	인천	3.86	25.0	46.4	17.9	10.7	0.0	
	광주	3.94	16.7	66.7	11.1	5.6	0.0	
	대전	3.53	5.9	47.1	41.2	5.9	0.0	
	울산	4.08	38.5	38.5	15.4	7.7	0.0	
	경기	3.69	14.8	48.4	28.7	7.4	0.8	
	강원	3.53	13.3	46.7	20.0	20.0	0.0	
	충북	3.25	0.0	43.8	43.8	6.3	6.3	
	충남	3.62	4.8	57.1	33.3	4.8	0.0	
	전북	3.45	5.0	55.0	20.0	20.0	0.0	
	전남	3.67	33.3	11.1	44.4	11.1	0.0	
	경북	3.68	12.0	56.0	20.0	12.0	0.0	
	경남	3.89	28.6	40.0	22.9	8.6	0.0	
	제주	4.17	16.7	83.3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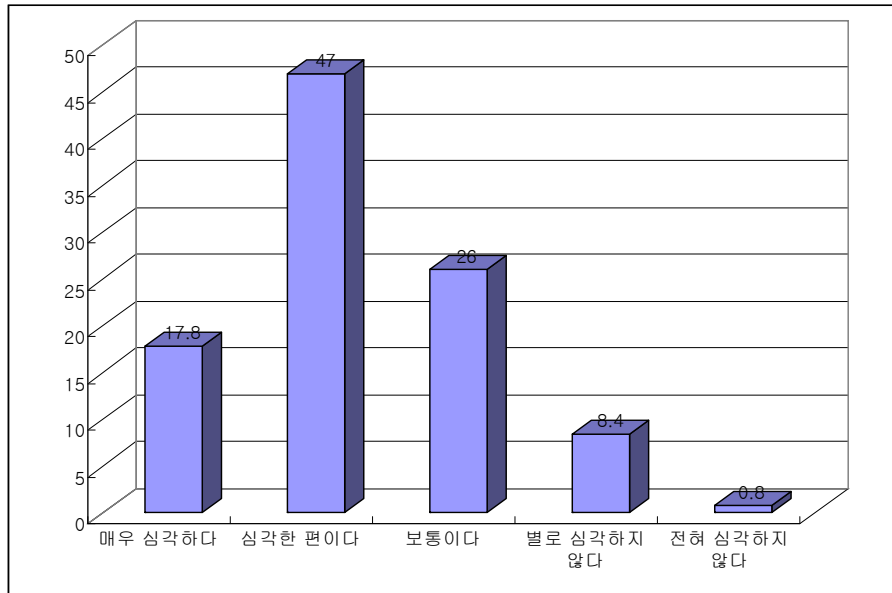
권역별	수도권	3.75	18.5	47.5	25.6	7.6	0.8	17.943 (0.327)
	충청권	3.48	3.7	50.0	38.9	5.6	1.9	
	영남권	3.80	22.9	44.3	23.7	8.4	0.8	
	호남권	3.68	17.9	44.6	25.0	12.5	0.0	
	강원 제주권	3.71	14.3	57.1	14.3	14.3	0.0	
학교급별	초등학교	3.69	21.0	41.4	25.5	10.2	1.9	15.450 (0.051)
	중학교	3.77	12.9	56.5	25.3	5.3	0.0	
	고등학교	3.71	19.7	42.8	27.2	9.8	0.6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3.73	18.2	47.3	24.6	8.8	1.1	5.563 (0.696)
	남학교	3.69	17.2	40.6	35.9	6.3	0.0	
	여학교	3.76	16.1	51.6	24.2	8.1	0.0	
설립 유형별	국·공립	3.74	18.4	46.7	26.7	7.2	1.1	4.500 (0.343)
	사립	3.68	16.0	48.0	24.0	12.0	0.0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3.75	17.5	49.1	25.4	7.0	0.9	1.453 (0.835)
	비실시	3.70	18.0	45.2	26.5	9.6	0.7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은 보통 이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체 평균은 약 3.73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학부모(3.68)보다는 여자 학부모(3.78)들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교(3.77), 고등학교(3.71), 초등학교(3.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성별, 학교급 간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학부모 응답자 전체의 약 65%정도가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하였고, 이 중에서 17.8%의 학부모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심각성 정도에 대한 반응별 전체 빈도 비율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 [그림Ⅱ-1]과 같다.

변인별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급에 대한 차이가 가장 뚜렷했다. 중학교 학부모들의 경우 69.4%가 심각하다고 반응하여 심각성 인식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62.5%, 초등학교 6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이 중학교 수준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도 수준도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다.

학부모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응답자 6명 전원이 심각하다고 답하였고, 광주 83.3%, 인천과 울산의 경우 7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전남과 충북은 44% 내외의 학부모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에는 지역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 (단위 : %)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의 순으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학교의 경우 심각하다고 보는 빈도가 57.8%로 학부모 전체의 심각하다는 인식 빈도 64.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설립 형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학부모들이 느끼는 학교 폭력 심각성 수준이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느끼는 심각성 수준보다 높음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권조례 실시 여부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권 조례 실시 지역이 비 실시지역의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학부모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어떠한 유형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이 조사에서

는 신체폭행,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위협이나 협박,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협박·동영상 촬영 피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의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조사 질문지는 ‘모두 심각하지 않다’의 응답지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과를 제시하면 <표 II-3>와 같다.

표 II-3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X ² (유의 확률)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괴롭힘 (심부름, 건드리기)	신체 폭행	위협 이나 협박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뺏음)	인터넷 휴대폰 욕설, 협박등 영상 촬영 피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	모두 심각 하지 않다	
전 체		35.0	21.0	17.0	11.4	5.6	3.8	3.4	2.0	0.8	
성별	남	31.6	19.0	18.6	11.8	8.0	5.7	3.0	2.3	0.0	19.656 (0.012)
	여	38.8	23.2	15.2	11.0	3.0	1.7	3.8	1.7	1.7	
지역별	서울	33.0	20.5	12.5	14.8	6.8	2.3	3.4	4.5	2.3	119.360 (0.499)
	부산	41.9	12.9	22.6	3.2	0.0	3.2	9.7	3.2	3.2	
	대구	33.3	25.9	11.1	11.1	0.0	7.4	7.4	3.7	0.0	
	인천	32.1	17.9	25.0	17.9	3.6	3.6	0.0	0.0	0.0	
	광주	16.7	27.8	33.3	16.7	5.6	0.0	0.0	0.0	0.0	
	대전	35.3	0.0	17.6	17.6	11.8	17.6	0.0	0.0	0.0	
	울산	30.8	30.8	30.8	0.0	7.7	0.0	0.0	0.0	0.0	
	경기	34.4	25.4	18.9	11.5	4.9	1.6	2.5	0.8	0.0	
	강원	40.0	13.3	13.3	13.3	20.0	0.0	0.0	0.0	0.0	
	충북	37.5	25.0	31.3	0.0	0.0	6.3	0.0	0.0	0.0	
	충남	33.3	33.3	9.5	0.0	9.5	4.8	9.5	0.0	0.0	
	전북	50.0	20.0	10.0	5.0	5.0	5.0	0.0	5.0	0.0	
	전남	38.9	27.8	11.1	0.0	11.1	5.6	5.6	0.0	0.0	
	경북	32.0	12.0	28.0	16.0	0.0	4.0	0.0	4.0	4.0	
	경남	40.0	11.4	2.9	17.1	8.6	8.6	8.6	2.9	0.0	
제주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33.6	22.7	17.2	13.4	5.5	2.1	2.5	2.1	0.8	4.955 (0.762)
	충청권	35.2	20.4	18.5	5.6	7.4	9.3	3.7	0.0	0.0	
	영남권	36.6	16.8	16.8	10.7	3.1	5.3	6.1	3.1	1.5	
	호남권	35.7	25.0	17.9	7.1	7.1	3.6	1.8	1.8	0.0	
	강원 제주권	38.1	19.0	9.5	19.0	14.3	0.0	0.0	0.0	0.0	

학교급별	초등학교	40.1	19.7	15.9	9.6	4.5	3.8	3.8	0.6	1.9	15.766 (0.469)
	중학교	31.8	21.2	17.1	14.7	7.1	1.8	3.5	2.9	0.0	
	고등학교	33.5	22.0	17.9	9.8	5.2	5.8	2.9	2.3	0.6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36.1	22.2	16.0	11.2	5.3	3.2	3.2	1.9	0.8	16.495 (0.419)
	남학교	21.9	25.0	21.9	14.1	7.8	6.3	1.6	1.6	0.0	
	여학교	41.9	9.7	17.7	9.7	4.8	4.8	6.5	3.2	1.6	
설립 유형별	국·공립	35.5	20.0	18.1	11.5	5.9	3.5	3.5	1.3	0.8	5.929 (0.655)
	사립	33.6	24.0	13.6	11.2	4.8	4.8	3.2	4.0	0.8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32.5	23.7	17.5	13.2	5.7	1.8	2.6	2.2	0.9	8.882 (0.352)
	비실시	37.1	18.8	16.5	9.9	5.5	5.5	4.0	1.8	0.7	

우선 1번 질문의 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반응한 학부모의 비율이 0.8%였는데 2번 질문 학교 폭력 유형에서도 ‘모두 심각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0.8%였다.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학교 폭력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학부모도 일정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한 반응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신체폭행의 순서로 심각하다고 답하였고 이들 유형이 전체 응답의 84.5%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폭력의 4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협박·동영상 촬영 피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은 응답한 비율이 4% 미만으로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그다지 주변에서 그리 흔하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의 경우 심각한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자 학부모는 각각 38.8%, 23.2%의 비율로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심각한 폭력 유형으로 남자 학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였다. 남자 학부모도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심각한 폭력 유형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인지하였으나 여자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위협이나 협박,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도 심각한 학교 폭력 유형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성별 따른 인식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 유형에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일반화 할 수 있다.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에 대해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는 것은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학교폭력을 여자 학부모인 어머니 쪽이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에 비해 남자 학부모는 괴롭힘, 위협이나 협박,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 폭력에 민감하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지역에 따라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신체폭행의 순서로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부산의 경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에 각각 41.9%와 22.6%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광주는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을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1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강원은 위협이나 협박에 20.0% 응답하여 집단 따돌림 다음으로 심각한 학교 폭력유형으로 꼽았다. 제주는 신체폭행 유형에도 33.3%의 다소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학교 폭력 유형에 지역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지역 간의 심각한 학교 폭력 유형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와 같은 학교 외 변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급들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신체폭행, 위협이나 협박 등에도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중학교의 경우 비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학교유형별이나 설립형태별이나 인권조례실시 지역 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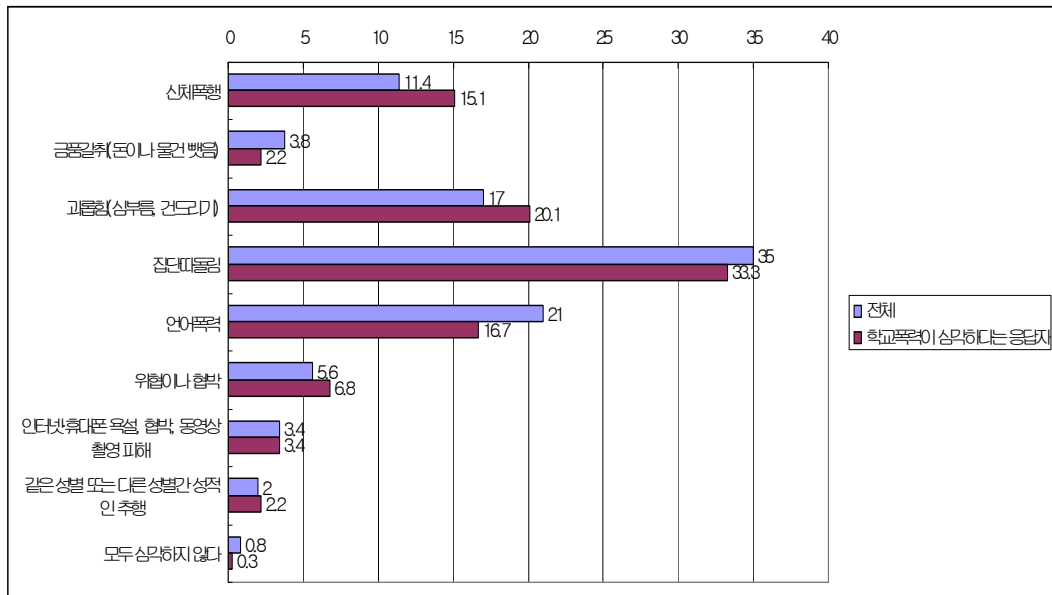
여기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324명(전체응답자의 65%)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유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I-4>와 같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집단 보다 신체 폭행, 괴롭힘, 위협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유형의 폭력이 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4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신체폭행	11.4	15.1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3.8	2.2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17.0	20.1
집단따돌림	35.0	33.3
언어폭력	21.0	16.7
위협이나 협박	5.6	6.8
인터넷·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피해	3.4	3.4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간 성적인 추행	2.0	2.2
모두 심각하지 않다	0.8	0.3
계	100.0(500)	100.0(324)



[그림 II-2]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단위 : %)

(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X ² (유의확률)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전 체		32.4	26.0	18.6	13.4	9.2	
성별	남	33.1	28.1	16.0	14.1	8.0	5.996 (0.307)
	여	31.6	23.6	21.5	12.7	10.5	
지역별	서울	29.5	27.3	14.8	17.0	11.4	73.633 (0.523)
	부산	38.7	29.0	12.9	12.9	6.5	
	대구	22.2	29.6	29.6	18.5	0.0	
	인천	32.1	21.4	25.0	7.1	14.3	
	광주	44.4	16.7	16.7	16.7	5.6	
	대전	29.4	35.3	11.8	11.8	11.8	
	울산	30.8	38.5	7.7	15.4	7.7	
	경기	37.7	21.3	24.6	9.8	6.6	
	강원	26.7	13.3	13.3	20.0	20.0	
	충북	37.5	25.0	12.5	18.8	6.3	
	충남	33.3	28.6	19.0	14.3	4.8	
	전북	15.0	45.0	25.0	5.0	10.0	
	전남	33.3	38.9	11.1	11.1	5.6	
	경북	32.0	8.0	28.0	16.0	16.0	
	경남	31.4	28.6	8.6	11.4	17.1	
	제주	16.7	50.0	0.0	33.3	0.0	
권역별	수도권	34.0	23.5	21.0	12.2	9.2	20.603 (0.421)
	충청권	33.3	29.6	14.8	14.8	7.4	
	영남권	31.3	26.0	17.6	14.5	9.9	
	호남권	30.4	33.9	17.9	10.7	7.1	
	강원 제주권	23.8	23.8	9.5	23.8	14.3	
학교급별	초등학교	30.6	24.8	21.7	12.1	9.6	11.472 (0.322)
	중학교	31.8	25.3	16.5	18.2	8.2	
	고등학교	34.7	27.7	17.9	9.8	9.8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31.6	25.4	19.0	14.7	8.8	4.953 (0.894)
	남학교	34.4	31.3	17.2	9.4	7.8	
	여학교	35.5	24.2	17.7	9.7	12.9	
설립 유형별	국 · 공립	32.0	25.9	17.6	14.1	10.1	3.580 (0.611)
	사립	33.6	26.4	21.6	11.2	6.4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35.1	23.2	20.2	13.2	8.3	4.754 (0.447)
	비실시	30.1	28.3	17.3	13.6	9.9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32.4%),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26.0%), 인터넷·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18.6%),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13.4%),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9.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학교중심의 학교 폭력 경감 대책이나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많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학부모는 전체적 경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28.1%)을 높게 꼽은 반면 여자 학부모는 인터넷·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21.5%),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10.5%)를 높게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22.2%)보다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29.6%), 인터넷·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29.6%)을 주요 요인의 높이 꼽았고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18.5%)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하였다. 제주의 경우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50.0%)을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다음으로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33.3%)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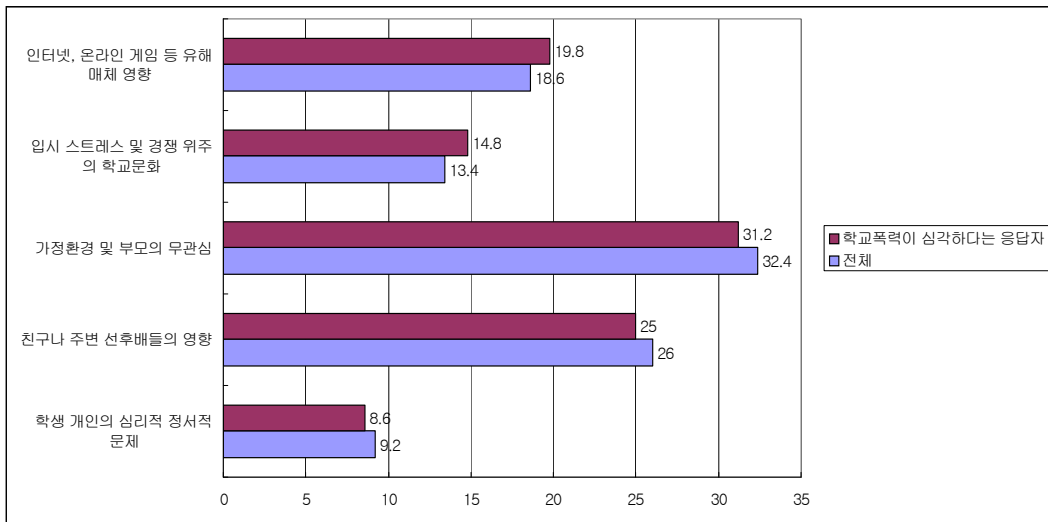
인권조례 실시 지역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실시지역의 경우 비실시지역에 비해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을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 가량 높은 반면,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으로 보는 비율은 5% 정도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간 차이를 인권 조례 실시에 따른 인식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집단간 차이 자체도 의미있는 유의수준을 벗어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324명(전체응답자의 65%)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II-6>과 같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의 인식을 학부모 전체 집단과 비교하면 경향성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인터넷·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의 영향을 보다 높이 인식하고 있다.

표 II-6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9.2	8.6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	26.0	25.0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32.4	31.2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13.4	14.8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	18.6	19.8
무응답	0.4	0.6
계	100.0(500)	100.0(324)



[그림 II-3]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단위 : %)

(4) 학교 폭력 지도의 장애 요인

무엇이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를 어렵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II-7>와 같다.

표 II-7 교사의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χ^2 (유의 확률)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 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	학생들의 또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	
전 체		32.8	16.0	14.8	13.8	11.8	10.4	
성별	남	30.4	13.7	17.9	15.2	10.3	11.8	11.081 (0.086)
	여	35.4	18.6	11.4	12.2	13.5	8.9	
지역별	서울	36.4	17.0	19.3	10.2	9.1	8.0	108.639 (0.088)
	부산	35.5	22.6	16.1	9.7	12.9	3.2	
	대구	29.6	18.5	3.7	22.2	18.5	7.4	
	인천	28.6	10.7	21.4	17.9	14.3	7.1	
	광주	33.3	11.1	0.0	11.1	27.8	16.7	
	대전	47.1	17.6	11.8	0.0	5.9	17.6	
	울산	7.7	7.7	15.4	23.1	15.4	23.1	
	경기	32.0	13.1	17.2	14.8	9.8	12.3	
	강원	40.0	26.7	0.0	6.7	0.0	26.7	
	충북	25.0	31.3	12.5	6.3	18.8	6.3	
	충남	9.5	4.8	14.3	28.6	33.3	9.5	
	전북	45.0	15.0	15.0	20.0	0.0	5.0	
	전남	44.4	5.6	11.1	22.2	16.7	0.0	
	경북	36.0	16.0	28.0	12.0	4.0	4.0	
	경남	34.3	22.9	8.6	11.4	8.6	14.3	
	제주	16.7	33.3	0.0	0.0	16.7	33.3	
권역별	수도권	33.2	14.3	18.5	13.4	10.1	10.1	28.745 (0.230)
	충청권	25.9	16.7	13.0	13.0	20.4	11.1	
	영남권	31.3	19.1	13.7	14.5	11.5	9.2	
	호남권	41.1	10.7	8.9	17.9	14.3	7.1	
	강원 제주권	33.3	28.6	0.0	4.8	4.8	28.6	
학교급별	초등학교	31.2	17.2	11.5	15.3	12.7	11.5	8.508 (0.744)
	중학교	30.0	15.3	19.4	13.5	12.9	8.8	
	고등학교	37.0	15.6	13.3	12.7	9.8	11.0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33.4	14.2	15.0	14.4	11.8	11.0	11.489 (0.488)
	남학교	23.4	23.4	14.1	14.1	15.6	9.4	
	여학교	38.7	19.4	14.5	9.7	8.1	8.1	
설립 유형별	국·공립	32.0	16.0	14.1	13.3	13.3	10.9	5.045
	사립	35.2	16.0	16.8	15.2	7.2	8.8	(0.538)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33.8	14.5	16.7	12.7	11.0	11.0	2,464 (0.872)
	비실시	32.0	17.3	13.2	14.7	12.5	9.9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 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인 것으로 학부모는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혹은 교사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학부모의 32.8%가 교사의 지도 능력부족을 꼽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을 들고 있으나 16.0%에 지나지 않아 10%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 다른 요인들과 차이가 커지 않는다.

집단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학부모들이 남성 학부모에 비해 교사의 소통 교감 능력을 더욱 문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를 두 번째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강원, 전남, 전북은 교사의 지도 능력을 첫 번째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는가 하면 충남은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33.3%)을 첫 번째 장애요인으로,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28.6%)을 두 번째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력과 시간의 부족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324명(전체응답자의 65%)의 경우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 장애요인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와 전문상담 교사의 부족을 학부모 전체 집단과 비교하면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표 II-8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	11.8	10.5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	32.8	34.0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14.8	14.8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	16.0	13.6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13.8	15.7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	10.4	10.8
무응답	0.4	0.6
계	100.0(500)	100.0(324)

(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의 모색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및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9>와 같다.

표 II-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X ² (유의 확률)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문화· 예술· 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	가정,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 지도	
전 체	35.0	15.6	15.2	13.6	12.4	8.2	
성별	남	29.3	18.3	14.1	12.9	14.1	16.547 (0.005)
	여	41.4	12.7	16.5	14.3	10.5	
지역별	서울	42.0	13.6	14.8	9.1	11.4	76.005 (0.446)
	부산	29.0	9.7	16.1	22.6	12.9	
	대구	37.0	7.4	14.8	11.1	18.5	
	인천	39.3	17.9	7.1	21.4	10.7	
	광주	16.7	27.8	22.2	0.0	22.2	
	대전	35.3	29.4	11.8	11.8	11.8	
	울산	46.2	15.4	15.4	15.4	0.0	
	경기	33.6	16.4	18.9	13.1	11.5	
	강원	26.7	26.7	6.7	6.7	13.3	
	충북	18.8	6.3	12.5	25.0	12.5	
	충남	23.8	9.5	4.8	19.0	28.6	
	전북	40.0	10.0	25.0	5.0	5.0	
	전남	44.4	16.7	22.2	11.1	0.0	
	경북	44.0	12.0	16.0	8.0	16.0	

	경남	28.6	25.7	11.4	25.7	8.6	0.0	
	제주	50.0	0.0	0.0	16.7	33.3	0.0	
권역별	수도권	37.4	15.5	16.0	12.6	11.3	7.1	0.916 (0.969)
	충청권	25.9	14.8	9.3	18.5	18.5	13.0	
	영남권	35.1	14.5	14.5	17.6	12.2	6.1	
	호남권	33.9	17.9	23.2	5.4	8.9	10.7	
	강원 제주권	33.3	19.0	4.8	9.5	19.0	14.3	
학교급별	초등학교	39.5	14.6	13.4	14.0	10.8	7.6	7.067 (0.719)
	중학교	31.8	17.1	14.1	12.4	13.5	11.2	
	고등학교	34.1	15.0	17.9	14.5	12.7	5.8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36.4	16.0	15.5	13.1	11.5	7.5	9.436 (0.491)
	남학교	32.8	12.5	14.1	12.5	12.5	15.6	
	여학교	29.0	16.1	14.5	17.7	17.7	4.8	
설립 유형별	국·공립	34.1	16.8	14.9	13.3	12.3	8.5	2.080 (0.838)
	사립	37.6	12.0	16.0	14.4	12.8	7.2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35.5	16.2	17.5	10.5	12.3	7.9	4.618 (0.464)
	비실시	34.6	15.1	13.2	16.2	12.5	8.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이 응답자의 35%를 차지하였다. 그 외 방안들이 각각 8~15%의 고른 반응 빈도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문화의 변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무엇보다 성별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자 학부모들(29.3%)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로 여자학부모들(41.4%)이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을 절실한 방안으로 인식하였고,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나 가정·경찰 관련 기관의 연계 지도 등 강압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학부모들은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필요한 방안으로 꼽은 비율이 높은 (23.2%) 반면 제주, 광주, 충남지역은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에도 높은 비율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 경남 지역과 충북 지역은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가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정책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각 지역별로 지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경찰 등 지역유관 기관 등이 합심하여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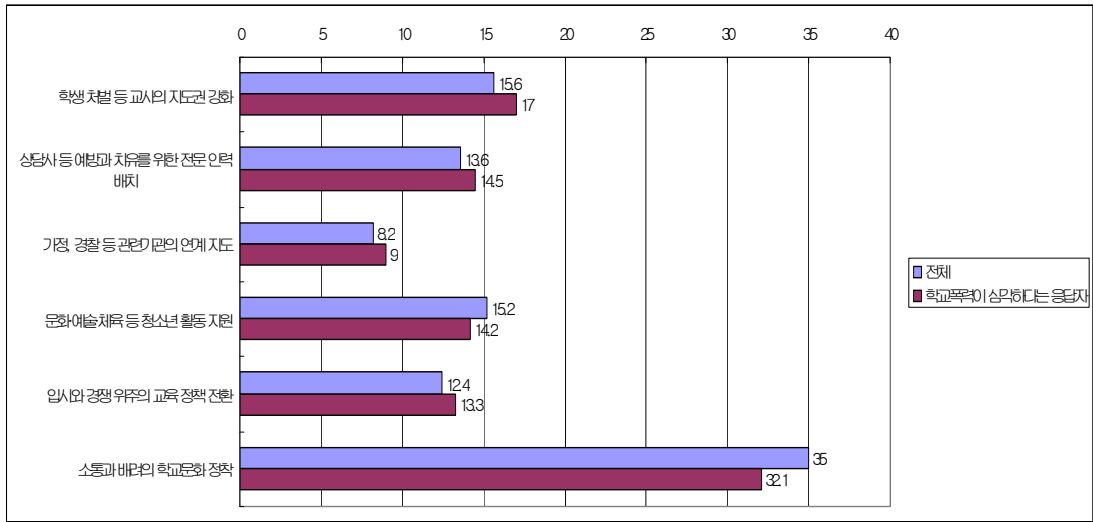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지역 간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간 및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교가 그리고 남녀공학이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에 대한 반응이 높다. 인권실시조례 여부에 따라서는 실시지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비실시 지역의 경우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를 약간 더 필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인권조례실시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보기 어려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324명(전체응답자의 65%)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10>과 같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의 인식을 학부모 전체 집단과 비교하면 경향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이라는 대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15.6	17.0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13.6	14.5
가정,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 지도	8.2	9.0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	15.2	14.2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	12.4	13.3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	35.0	32.1
계	100.0(500)	100.0(324)



[그림 II-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단위 : %)

(6) 학교폭력 경감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상

그러면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학부모들은 인식하는 것일까? 아래의 <표 II-11>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표이다.

표 II-11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χ^2 (유의 확률)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 되는 학교 문화	민주적 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의 학교문화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전 체	60.4	13.2	8.4	8.0	7.2	2.4	12.346 (0.055)
성별	남	60.5	10.6	9.1	7.6	9.9	
	여	60.3	16.0	7.6	8.4	4.2	

지역별	서울	46.6	17.0	13.6	6.8	10.2	4.5	111.322 (0.063)
	부산	64.5	16.1	9.7	6.5	3.2	0.0	
	대구	63.0	7.4	11.1	14.8	3.7	0.0	
	인천	75.0	10.7	0.0	7.1	7.1	0.0	
	광주	44.4	33.3	5.6	11.1	5.6	0.0	
	대전	52.9	17.6	5.9	5.9	17.6	0.0	
	울산	46.2	7.7	7.7	23.1	15.4	0.0	
	경기	59.8	11.5	6.6	9.0	9.8	3.3	
	강원	80.0	6.7	13.3	0.0	0.0	0.0	
	충북	62.5	6.3	12.5	6.3	12.5	0.0	
	충남	52.4	19.0	14.3	9.5	0.0	4.8	
	전북	70.0	15.0	15.0	0.0	0.0	0.0	
	전남	66.7	5.6	11.1	5.6	11.1	0.0	
	경북	68.0	12.0	4.0	12.0	0.0	4.0	
	경남	74.3	11.4	0.0	5.7	2.9	5.7	
	제주	83.3	0.0	0.0	0.0	0.0	0.0	
권역별	수도권	56.7	13.4	8.4	8.0	9.7	3.4	30.317 (0.174)
	충청권	55.6	14.8	11.1	7.4	9.3	1.9	
	영남권	65.6	11.5	6.1	10.7	3.8	2.3	
	호남권	60.7	17.9	10.7	5.4	5.4	0.0	
	강원 제주권	81.0	4.8	9.5	0.0	0.0	0.0	
학교급별	초등학교	62.4	15.3	5.1	6.4	7.0	3.2	12.213 (0.429)
	중학교	60.6	8.8	11.8	8.8	8.2	1.2	
	고등학교	58.4	15.6	8.1	8.7	6.4	2.9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58.6	13.6	8.0	8.3	8.0	3.2	11.885 (0.455)
	남학교	64.1	15.6	9.4	4.7	4.7	0.0	
	여학교	67.7	8.1	9.7	9.7	4.8	0.0	
설립 유형별	국·공립	60.3	12.5	8.0	8.5	7.7	2.7	3.032 (0.805)
	사립	60.8	15.2	9.6	6.4	5.6	1.6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53.5	15.4	9.2	8.3	9.6	3.5	10.804 (0.095)
	비실시	66.2	11.4	7.7	7.7	5.1	1.5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문화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가장 필요하다는 반응이 60.4%로 압도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사의 권위나 전문성, 학생의 인성 혹은 인권을 강조하는 학교문화처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는 학교문화는 상대적으로 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학부모의 경우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16.0%)을 보이는 반면에 남성 학부모의 경우 다른 항목보다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9.9%)에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유의도 수준 0.05에 근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학교문화에 대한 기대수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바람직한 학교 문화에 대한 기대의 차이 및 의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준거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324명(전체응답자의 65%)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을 응답한 175명(전체응답자의 35%)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 <표 II-12>와 같다.

표 II-12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응답자 반응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응답자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60.4	62.3	62.3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7.2	4.9	3.4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13.2	12.7	16.0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2.4	1.5	2.9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8.0	9.0	8.0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8.4	9.3	6.3
무응답	0.4	0.3	1.1
계	100.0(500)	100.0(324)	100.0(175)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두 집단의 인식을 학부모 전체 집단과 비교하면 경향성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에 대한 응답이 낮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제대로 지도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학부모 전체 집단에서도 그다지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일수록 더욱 지지받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인식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통과 배려 협력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다. 소통과 배려,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존중, 협력, 배려하는 정도에 대한 현실 인식 파악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 정도와 권리 관계에 대한 인식, 권리 갈등 시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학부모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1로, ‘매우 심각하다’를 5로 입력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각 척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배경 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척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토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을 토대로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변인이 많지 않아 변인별 차이는 살펴보지 않고 전체적인 경향만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13>과 같다.

표 II-13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반응 빈도 및 평균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그렇다 응답 빈도	평균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 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1)		
1)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서로 친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18.0	60.6	18.8	2.4	0.2	78.6	3.94
2) 우리 아이는 교사의 권위와 학생 지도권을 존중한다	15.2	60.8	20.0	3.8	0.2	76	3.87
3) 나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잘 협력한다	16.8	60.6	21.0	1.8	0.4	77.4	3.91
4) 교사는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개입하여 해결해준다	3.8	35.2	46.0	12.6	2.4	39	3.26
5) 교사는 나와 잘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5.2	38.4	42.0	12.8	1.6	43.6	3.33

6)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다	28.0	60.8	7.4	2.8	1.0	88.8	4.12
7)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개선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4.4	33.4	31.4	24.8	6.0	37.8	3.05
8)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이다	5.0	28.4	33.4	27.6	5.6	33.4	3.00
9)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늘어나고 교사의 교육권이 약화될 것이다	9.2	36.8	26.6	24.4	3.0	46	3.25
10) 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8	21.4	55.8	18.2	1.8	24.2	3.05
11)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7.2	53.2	24.8	13.0	1.8	60.4	3.51
12) 학생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3.2	22.2	38.0	30.2	6.4	25.4	2.86
13)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대리하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보다 우선한다	7.8	55.0	26.2	10.6	0.4	62.8	3.59
14) 교사의 학생지도에서 교사의 결정권보다 학부모의 요구가 우선한다	1.2	10.4	31.4	51.2	5.8	11.6	2.50
15)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기초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4.6	57.8	28.6	8.0	1.0	62.4	3.57

우선 전체적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를 합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88.8%에 달하고, 반응을 5점 척도로 점수한 평균값도 4.12에 달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에서 교육공동체구성원의 관계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인식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78.6%), 교사의 권위와 학생지도권을 존중(76%)하고 있으며, 학부모 자신도 교사의 지도에 잘 협력(77.4%)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점 척도화한 평균도 3.9 전후여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교사는 학부모들과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43.6%)거나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개입하여 해결해준다(39%)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응이 40% 대이고 평균값도 각각 3.26과 3.33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학부모 자신과 자녀의 협력과 존중에 비해 교사의 지도와 배려는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인식

학생인권과 교권,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학생인권과 교사·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이 3.25이다. 그리고 46%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학생인권의 강화가 교권의 약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개선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비율이 37.8%,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비율이 33.4%에 이르러 학생인권 강화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학부모 집단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인권강화에 대해 각각 3.05, 3.00으로,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 학생인권의 강화가 교사 학생의 관계 개선 혹은 학교 폭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5점 척도 평균값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도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별과 학교급별이었다. 남자 학부모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 평균 2.90의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여자 학부모는 3.10의 반응을 보여, 여자 학부모들이 학생인권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다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다-반응 평균 집단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	263	2.90	1.013	4.701	0.031
	여	237	3.10	0.963		
학교급별	초등학교	157	3.18	0.909	5.078	0.007
	중학교	170	2.99	1.058		
	고등학교	173	2.83	0.977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학부모의 비율이 24.2%에 그치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자도 55.8%에 달해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 이해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에 따라서는 강원(40.0%), 광주(38.9%), 충남(38.1%) 전남(33.3%) 충북(31.8%)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이해한다는 비율이 높고, 대구(14.8%), 전북(15.0%), 울산(15.4%)의 순서로 이해한다는 비율이 적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려워, 학생 인권 이해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의 인권 제한 대해서는 학부모의 60.4%가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5점 척도 평균도 3.51에 달하여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생집단 간의 권리 충돌시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교권에 우선한다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반응 평균이 2.8로 낮고,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25.4% 낮은 편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로서의 학생 인권의 성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권, 학부모의 권리, 학생 인권 즉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지도에서 교권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육권이 학부모의 권리보다 우선한다에 62.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학부모의 요구가 교사의 결정권보다 우선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11.6%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한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했다.

5점 척도 평균을 비교하면 교권의 학부모 권리 우선이 3.59, 학생인권의 교권 우선이 2.86이다.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지도권으로 대표되는 교권이 학생인권이거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 및 참여권과 교사의 지도 및 결정권이 갈등하거나 충돌할 경우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을 기초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비율 62.4%, 평균 3.57)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관계가 개선되고 학교문화가 소통과 배려의 문화로 변화되어야한다는 것에는 높은 공감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공동체구성원 상호에 대한 신뢰와 존중, 특히 학부모의 교사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 개선의 기반이 되는 상대방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이해 수준 역시 높지 않다. 특히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나 권리의 성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 역시 저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생지도에서 교사의 학생지도 및 권한이 중요하고, 여타 교육공동체구성원 혹은 그들의 권리에 비해 우선성을 부여하였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으로 교사의 지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응 비율은 낮아 교권의 강화가 학교폭력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비폭력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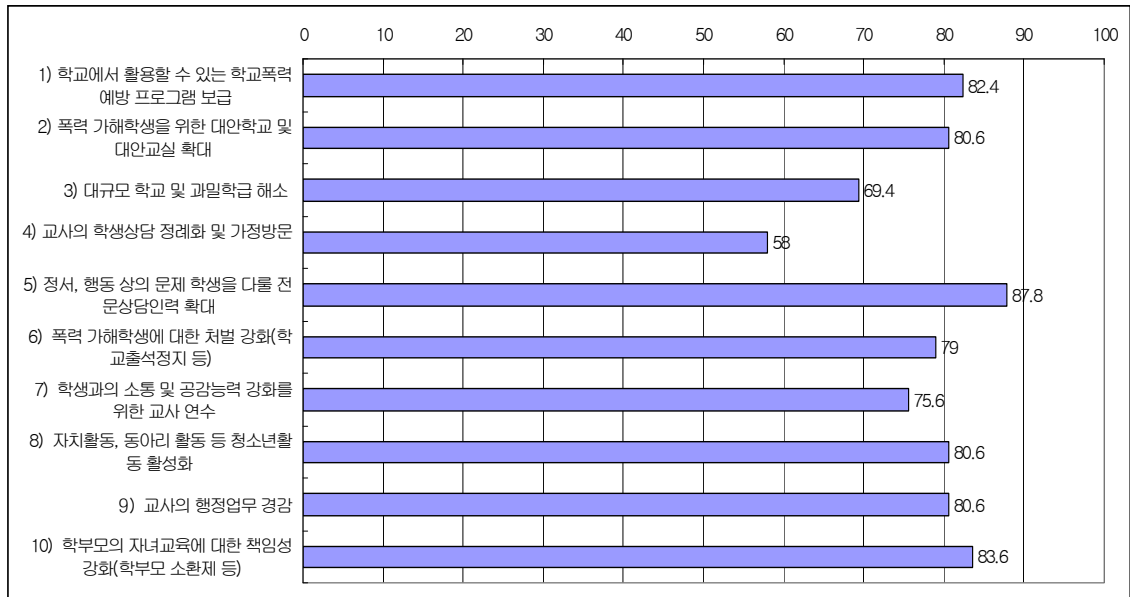
표 II-15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중요하다 응답 빈도	평균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급	20.2	62.2	15.4	2.0	0.2	82.4	4.00
2)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25.4	55.2	16.2	3.0	0.2	80.6	4.02
3)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15.2	54.2	24.2	5.8	0.6	69.4	3.78
4) 교사의 학생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	8.8	49.2	35.8	5.6	0.6	58.0	3.60
5)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다룰 전문상담인력 확대	30.6	57.2	11.0	0.8	0.4	87.8	4.17
6)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31.4	47.6	17.4	3.6	0.0	79.0	4.07
7)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21.6	54.0	20.6	3.0	0.8	75.6	3.93
8)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24.4	56.2	17.4	1.6	0.4	80.6	4.02
9)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17.2	56.6	21.2	4.2	0.8	80.6	3.85
10)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25.0	58.6	14.2	1.4	0.8	83.6	4.06

정책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5점 척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서 행동상의 문제학생을 다룰 전문 상담인력의 확대였다. 평균 4.17로 그렇다 이상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도 87.8%에 육박하였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인력의 확대가 시급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사안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 그렇다 이상 수준의 반응을 보인 정책은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4.07),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4.06),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4.02),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4.02)의 순서였다. 그러나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평균은 높으나 소극적인 반응 비율이 21%에 달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과밀학급 해소나 교사의 학생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은 학교폭력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책사안으로서는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각 정책별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반응한 응답 빈도를 기준으로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5]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단위 : %)

제 3 장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1. 교사 설문조사 개요
2. 교사 설문조사 결과

제 3 장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1. 교사 설문조사 개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근무하는 초·중·고등학생 교사 538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표집방법¹⁾에 따랐다. 표집된 학교는 총 102개 학교이며 학교 당 3명에서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분석대상 교사의 인구학적 현황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38)	표집비율
성별	남	(237)	44.1
	여	(301)	55.9
교직 경력별	5년이하	(143)	26.6
	6-15년이하	(179)	33.3
	16-25년이하	(130)	24.2
	26년이상	(86)	16.0
지역별	서울	(63)	11.7
	부산	(27)	5.0
	대구	(22)	4.1
	인천	(26)	4.8

1) 2011년 학교 수를 기준으로 5개 권역별, 교급·학교유형별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5개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강원·제주권(강원, 제주)이며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교유형은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 전문계고로 분류하였다. PPS 원칙에 따라 모집단 비율에 맞게 학교 수를 무작위 표집 하였다. 1개 학급 학생 수, 중학교는 학급당 33.6명, 일반계고는 학급당 33.2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급당 27.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역별	광주	(34)	6.3
	대전	(19)	3.5
	울산	(33)	6.1
	경기	(56)	10.4
	강원	(35)	6.5
	충북	(44)	8.2
	충남	(36)	6.7
	전북	(39)	7.2
	전남	(10)	1.9
	경북	(16)	3.0
	경남	(58)	10.8
	제주	(20)	3.7
지역규모별	대도시	(220)	40.9
	중소도시	(228)	42.4
	읍면지역	(90)	16.7
권역별	수도권	(145)	27.0
	충청권	(99)	18.4
	영남권	(156)	29.0
	호남권	(83)	15.4
	강원제주권	(55)	10.2
학교급별	초등학교	(170)	31.6
	중학교	(129)	24.0
	고등학교	(239)	44.4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384)	71.4
	남학교	(71)	13.2
	여학교	(83)	15.4
설립 형태별	국·공립	(422)	78.4
	사립	(116)	21.6
인권조례 실시여부	실시	(153)	28.4
	비실시	(385)	71.6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교사가 237명이고, 여자 교사는 301명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5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여성 교원 비율 67%에 비해 과소 표집 되었다. 지역별 표집의 경우 경기와 전남, 경북지역이 과소 표집 되고, 광주, 울산, 충북, 제주가 과대 표집 되었다. 학교급 별로 고등학교가 과대 표집 되고, 초등학교가 과소 표집 되었다. 교육경력에 교직 경력 5년 이하의 교원이 과대 표집 되었다. 따라서 교원 집단간의 표집상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통계 분석 결과에 오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간 차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임을 밝혀 둔다.

2. 교사 설문조사 결과

1)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1)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

〈표 Ⅲ-2〉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반응 빈도 및 5점 척도의 평균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2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에 대한 의견-집단별 평균 및 빈도 분석 (단위 : %)

구분		평균	유의 확률	반응빈도					유의 확률
				매우 심각 하다	심각한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전체		3.38		7.2	41.4	35.1	14.3	1.9	
성별	남	3.32	0.173	7.2	41.4	30.8	17.7	3.0	8.436 (0.077)
	여	3.43		7.3	41.5	38.5	11.6	1.0	
교직경력별	5년이하	3.45	0.233	7.7	46.2	33.6	9.1	3.5	13.109 (0.361)
	6-15년이하	3.42		7.8	41.3	37.4	12.3	1.1	
	16-25년이하	3.33		6.9	40.0	33.1	19.2	0.8	
	26년이하	3.23		5.8	36.0	36.0	19.8	2.3	
지역별	서울	3.49	0.228	9.5	42.9	34.9	12.7	0.0	97.715 (0.002)
	부산	3.59		18.5	55.6	3.7	11.1	11.1	
	대구	3.68		9.1	54.5	31.8	4.5	0.0	
	인천	3.27		0.0	30.8	65.4	3.8	0.0	
	광주	3.29		5.9	44.1	26.5	20.6	2.9	
	대전	3.47		5.3	36.8	57.9	0.0	0.0	
	울산	3.24		0.0	48.5	27.3	24.2	0.0	
	경기	3.34		7.1	39.3	33.9	19.6	0.0	
	강원	3.51		11.4	40.0	37.1	11.4	0.0	
	충북	3.34		6.8	47.7	22.7	18.2	4.5	
	충남	3.22		11.1	30.6	33.3	19.4	5.6	
	전북	3.51		7.7	46.2	35.9	10.3	0.0	
	전남	3.50		0.0	60.0	30.0	10.0	0.0	
	경북	3.75		18.8	43.8	31.3	6.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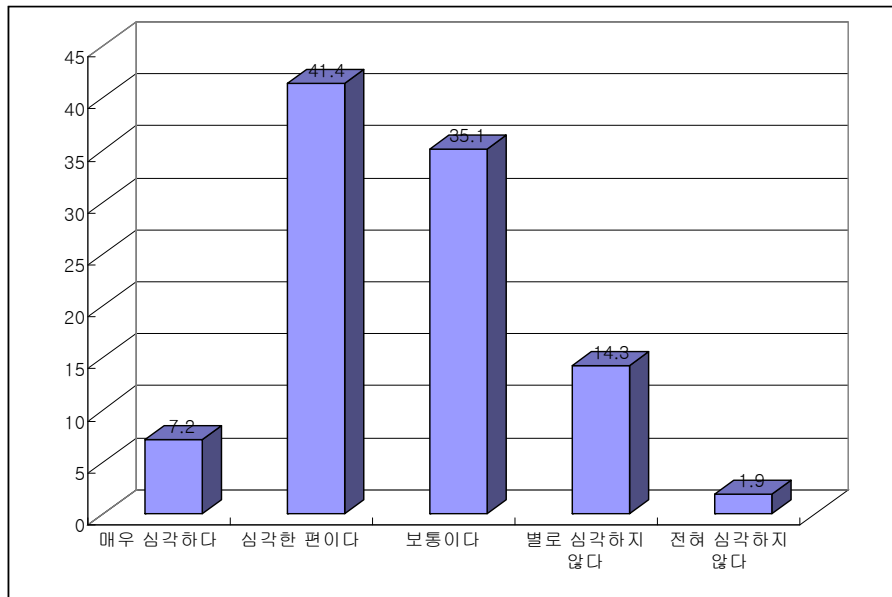
지역규모별	경남	3.14	0.055	1.7	27.6	53.4	17.2	0.0	13.216 (0.105)
	제주	3.15		5.0	40.0	30.0	15.0	10.0	
	대도시	3.45		7.3	45.5	34.1	11.8	1.4	
	중소도시	3.38		7.5	41.2	34.2	16.2	0.9	
	읍면지역	3.19		6.7	32.2	40.0	15.6	5.6	
권역별	수도권	3.39	0.960	6.9	39.3	40.0	13.8	0.0	9.518 (0.891)
	충청권	3.32		8.1	39.4	33.3	15.2	4.0	
	영남권	3.38		7.1	42.3	34.0	14.7	1.9	
	호남권	3.42		6.0	47.0	31.3	14.5	1.2	
	강원제주권	3.38		9.1	40.0	34.5	12.7	3.6	
학교급별	초등학교	3.19	0.001	6.5	28.2	45.9	17.1	2.4	26.683 (0.001)
	중학교	3.59		7.8	54.3	27.1	10.9	0.0	
	고등학교	3.40		7.5	43.9	31.8	14.2	2.5	
학교유형별	남녀공학	3.42	0.297	7.3	41.4	38.0	12.2	1.0	17.884 (0.022)
	남학교	3.30		4.2	42.3	35.2	15.5	2.8	
	여학교	3.28		9.6	41.0	21.7	22.9	4.8	
설립형태별	국·공립	3.38	0.907	7.1	41.9	34.8	14.2	1.9	0.243 (0.993)
	사립	3.37		7.8	39.7	36.2	14.7	1.7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3.39	0.830	7.8	41.8	32.7	17.0	0.7	3.221 (0.521)
	비실시	3.37		7.0	41.3	36.1	13.2	2.3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5점 척도화 했을 때 평균 3.38점을 나타내어 학교폭력을 보통에서 심각한 편이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균값으로 볼 때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규모와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대도시(3.45), 중소도시(3.38), 읍면지역(3.19)에 근무하는 순으로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교(3.59), 고등학교(3.40), 초등학교 순으로 교사들은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라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나 남자교사보다는 여자교사가,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는 젊은 교사들이 더 학교폭력을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의 근무지역별로 볼 때 경북(3.75), 대구(3.68), 부산(3.59)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경남(3.14), 제주(3.15)와 충남(3.22), 울산(3.24), 인천(3.27), 광주(3.29) 지역 교사들이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실시지역 여부는 해당지역 근무교사들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실시가 학교폭력을 강화시킨다는 주장과 일반교사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반응 빈도 면에서 보면 교사 응답자 전체의 약 48.6%만이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하였고, 이 중에서 7.2%의 교사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심각성 정도에 대한 반응별 전체 빈도 비율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 (단위 : %)

변인별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역시 학교급에 대한 차이가 가장 뚜렷했다. 중학교(62.1%), 고등학교(51.4%), 초등학교(34.7%)의 순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급에 교사들의 학교 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도 0.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중학교 급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의 근무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74.1%), 대구(63.6%), 경북(62.6%), 전남(60.0%)의 순서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경남(29.3%), 인천(30.8%) 지역 근무 교사들은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해 30% 전후의 응답자만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유형에서도 남녀공학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남학교나 여학교 근무교사보다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권조례 실시 여부와 학교설립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어떠한 유형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이 조사에서는 신체폭행,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위협이나 협박,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협박·동영상 촬영 피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의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조사 질문지는 ‘모두 심각하지 않다’의 응답지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단위 : %)

구분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괴롭힘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위협, 협박	인터넷·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피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	모두 심각하지 않다	X ² (유의 확률)
전체		11.2	3.5	28.4	19.0	29.4	2.6	2.6	0.7	2.0	
성별	남	13.1	4.2	31.6	17.3	24.5	3.4	2.1	0.4	3.4	15.573 (0.076)
	여	9.6	3.0	25.9	20.3	33.2	2.0	3.0	1.0	1.0	
교직 경력별	5년이하	10.5	2.8	28.7	19.6	30.1	2.8	1.4	2.1	2.1	29.411 (0.341)
	6-15년이하	10.1	2.2	27.9	24.0	30.2	1.7	1.1	0.6	1.7	
	16-25년이하	13.1	4.6	27.7	12.3	29.2	3.8	6.2	0.0	1.5	
	26년이하	11.6	5.8	30.2	17.4	26.7	2.3	2.3	0.0	3.5	
지역별	서울	12.7	3.2	28.6	20.6	28.6	1.6	1.6	1.6	1.6	144.596 (0.271)
	부산	7.4	3.7	29.6	40.7	7.4	3.7	0.0	0.0	7.4	
	대구	22.7	0.0	40.9	22.7	13.6	0.0	0.0	0.0	0.0	
	인천	7.7	0.0	46.2	7.7	30.8	3.8	0.0	3.8	0.0	
	광주	5.9	2.9	35.3	11.8	41.2	0.0	2.9	0.0	0.0	
	대전	21.1	5.3	5.3	31.6	21.1	0.0	10.5	0.0	0.0	
	울산	9.1	3.0	21.2	21.2	39.4	0.0	3.0	3.0	0.0	
	경기	12.5	0.0	25.0	23.2	28.6	5.4	1.8	1.8	1.8	
	강원	17.1	0.0	22.9	17.1	34.3	2.9	2.9	0.0	0.0	
	충북	6.8	2.3	22.7	18.2	36.4	4.5	4.5	0.0	2.3	
	충남	2.8	8.3	22.2	22.2	30.6	2.8	5.6	0.0	5.6	
	전북	12.8	2.6	25.6	17.9	33.3	5.1	2.6	0.0	0.0	
	전남	0.0	10.0	50.0	0.0	40.0	0.0	0.0	0.0	0.0	

지역 규모별	경북	18.8	6.3	37.5	18.8	18.8	0.0	0.0	0.0	0.0	25.391 (0.115)
	경남	12.1	5.2	31.0	10.3	32.8	3.4	3.4	0.0	1.7	
	제주	10.0	15.0	35.0	15.0	10.0	0.0	0.0	0.0	15.0	
	대도시	11.8	2.7	30.5	20.5	28.2	1.4	2.3	1.4	0.9	
	중소도시	10.1	4.4	28.1	18.4	30.7	3.9	2.6	0.4	1.3	
	읍면지역	12.2	3.3	24.4	16.7	28.9	2.2	3.3	0.0	6.7	
권역별	수도권	11.7	1.4	30.3	19.3	29.0	3.4	1.4	2.1	1.4	39.903 (0.301)
	충청권	8.1	5.1	19.2	22.2	31.3	3.0	6.1	0.0	3.0	
	영남권	12.8	3.8	30.8	20.5	25.6	1.9	1.9	0.6	1.9	
	호남권	8.4	3.6	32.5	13.3	37.3	2.4	2.4	0.0	0.0	
	강원제주권	14.5	5.5	27.3	16.4	25.5	1.8	1.8	0.0	5.5	
학교 급별	초등학교	11.8	1.8	17.1	22.9	38.2	2.9	1.8	0.6	2.9	37.911 (0.004)
	중학교	4.7	5.4	38.0	16.3	27.9	2.3	2.3	0.8	0.8	
	고등학교	14.2	3.8	31.4	17.6	23.8	2.5	3.3	0.8	2.1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11.5	3.9	28.4	19.5	28.1	2.6	2.6	1.0	1.6	23.814 (0.161)
	남학교	12.7	2.8	38.0	7.0	31.0	4.2	0.0	0.0	4.2	
	여학교	8.4	2.4	20.5	26.5	33.7	1.2	4.8	0.0	2.4	
설립 형태별	국·공립	11.4	3.3	27.3	20.1	28.9	2.6	2.4	0.7	2.6	7.179 (0.619)
	사립	10.3	4.3	32.8	14.7	31.0	2.6	3.4	0.9	0.0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11.1	2.0	28.8	19.6	31.4	2.6	2.0	1.3	1.3	4.855 (0.847)
	비실시	11.2	4.2	28.3	18.7	28.6	2.6	2.9	0.5	2.3	

학교 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반응한 교사의 비율이 2.0%로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학교 폭력의 문제를 심각한 교육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교사들도 일정 비율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한 반응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언어폭력(29.4%),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28.4%), 집단 따돌림(19.0%), 신체폭행(11.2%)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들 유형이 전체 응답의 88.1%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폭력의 4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교사들은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학교폭력을 양대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협박·동영상 촬영 피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은 응답한 비율이 4%미만으로, 빈번하게 혹은 심각하게 일어나는 유형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도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학교급별 변인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38.2%)과 집단 따돌림(22.9%), 괴롭힘(17.1%)이, 중학교에서는 괴롭힘(38.0%)과 언어폭력(27.9%)이, 고등학교에서는 괴롭힘(31.4%)과 언어폭력(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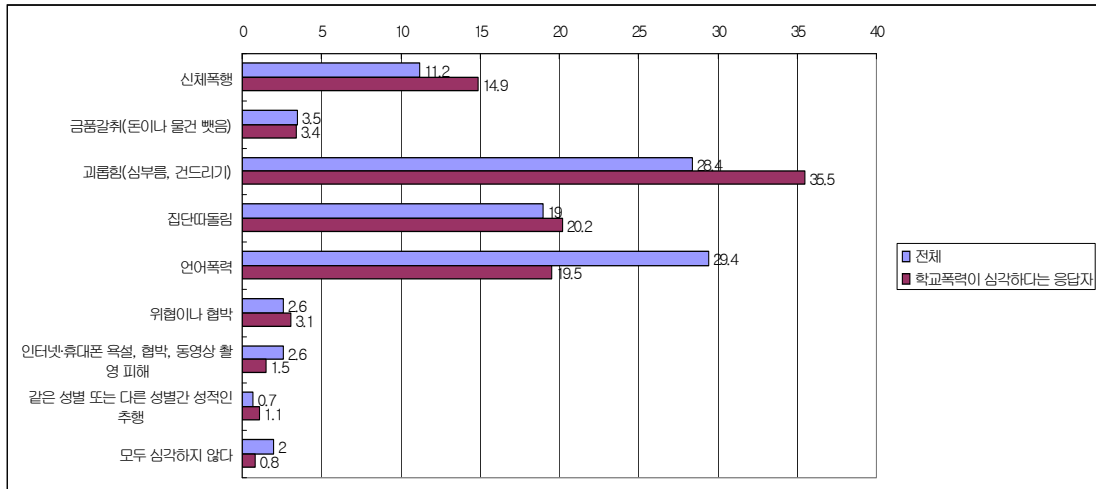
집단 따돌림(17.6%)으로 학교급별에 따라 심각한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비물리적 언어적 폭력 유형이 지배적이라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더욱 심각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유형의 학교급별 차이는 이후 학교 폭력 대책이 학교급별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비교를 위하여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 262명(전체응답자의 48.6%)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유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정리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교사 전체 집단이 언어폭력을 심각한 유형으로 첫 번째 꼽았다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괴롭힘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다음으로 꼽았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교사들은 폭력유형 중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등)이 훨씬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Ⅲ-4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신체폭행	11.2	14.9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3.5	3.4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28.4	35.5
집단따돌림	19.0	20.2
언어폭력	29.4	19.5
위협이나 협박	2.6	3.1
인터넷·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피해	2.6	1.5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간 성적인 추행	0.7	1.1
모두 심각하지 않다	2.0	0.8
무응답	0.6	0.0
계	100(538)	100.0(262)



[그림 III-2] 학교 폭력 유형-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단위 : %)

(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

구분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매체 영향	χ^2 (유의 확률)
전체		19.9	16.2	39.4	11.5	11.5	
성별	남	22.4	16.9	37.1	12.7	9.3	12.540 (0.051)
	여	17.9	15.6	41.2	10.6	13.3	
교직 경력별	5년 이하	17.5	17.5	39.9	10.5	14.0	11.481 (0.873)
	6-15년이하	20.7	15.1	41.9	10.1	10.1	
	16-25년이하	22.3	17.7	32.3	13.8	12.3	
	26년이상	18.6	14.0	44.2	12.8	9.3	
지역별	서울	25.4	14.3	38.1	7.9	11.1	94.962 (0.340)
	부산	18.5	25.9	25.9	25.9	3.7	

	대구	22.7	31.8	36.4	9.1	0.0	
	인천	26.9	7.7	38.5	11.5	11.5	
	광주	20.6	11.8	35.3	14.7	17.6	
	대전	21.1	10.5	52.6	10.5	0.0	
	울산	24.2	12.1	42.4	12.1	9.1	
	경기	19.6	12.5	44.6	8.9	12.5	
	강원	22.9	17.1	31.4	14.3	14.3	
	충북	15.9	22.7	45.5	6.8	4.5	
	충남	19.4	16.7	44.4	8.3	8.3	
	전북	23.1	25.6	35.9	12.8	2.6	
	전남	20.0	0.0	50.0	20.0	10.0	
	경북	12.5	18.8	62.5	6.3	0.0	
	경남	13.8	12.1	32.8	10.3	31.0	
	제주	5.0	15.0	35.0	20.0	25.0	
지역 규모별	대도시	23.2	15.9	38.6	11.4	9.1	19.582 (0.075)
	중소도시	16.2	17.1	42.5	8.3	14.9	
	읍면지역	21.1	14.4	33.3	20.0	8.9	
권역별	수도권	23.4	12.4	40.7	9.0	11.7	26.881 (0.310)
	충청권	18.2	18.2	46.5	8.1	5.1	
	영남권	17.9	17.9	37.2	12.8	14.1	
	호남권	21.7	16.9	37.3	14.5	9.6	
	강원제주권	16.4	16.4	32.7	16.4	18.2	
학교급별	초등학교	18.2	12.9	41.8	10.0	14.7	11.059 (0.524)
	중학교	17.8	20.9	40.3	9.3	10.9	
	고등학교	22.2	15.9	37.2	13.8	9.6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18.0	15.9	40.6	10.7	13.5	19.454 (0.078)
	남학교	26.8	11.3	36.6	11.3	9.9	
	여학교	22.9	21.7	36.1	15.7	3.6	
설립 형태별	국·공립	19.0	16.6	38.6	11.4	12.6	5.422 (0.491)
	사립	23.3	14.7	42.2	12.1	7.8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22.2	13.1	39.9	9.8	13.1	3.797 (0.704)
	비실시	19.0	17.4	39.2	12.2	10.9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39.4%),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19.9%),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16.2%), 인터넷·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11.5%),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11.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또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학생의 가정적, 개인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의 범위를 벗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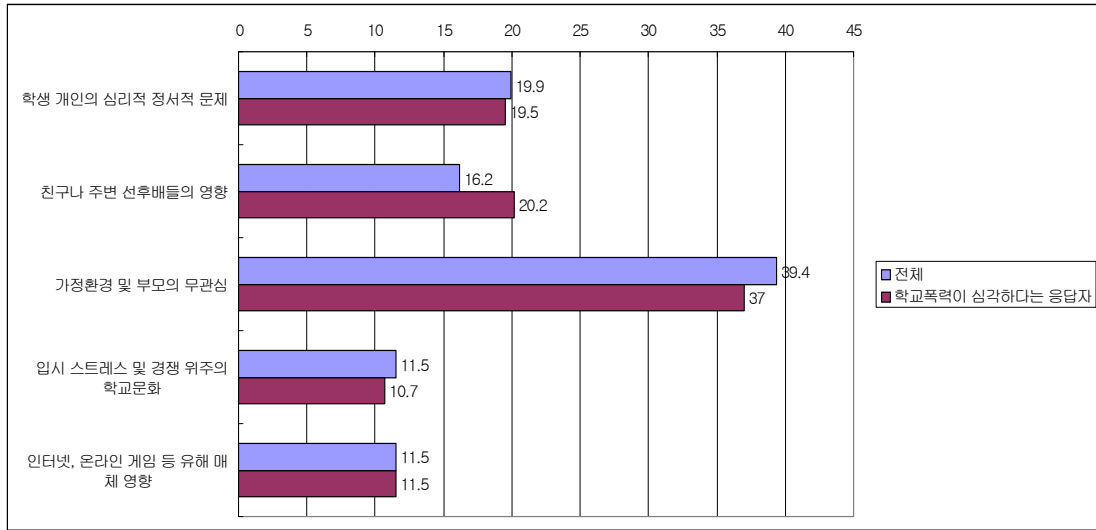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직경력이 15년 미만이거나 25년 이상인 교사는 가정 및 부모의 무관심을 높게 지적하는 한편, 교직 경력 6년~25년 사이의 교사는 상대적으로 학생의 가정적, 개인 심리적 문제의 영향에 높게 반응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교사는 전체적 경향에 비해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22.4%)를 높게 꼽은 반면 여자 교사는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41.2%)에 높게 반응을 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전남, 경북은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을 50%이상으로 높이 꼽았고, 서울과 인천은 개인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대적으로 높이 꼽았다. 부산, 전남, 제주는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가 20%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간 차이 자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 262명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Ⅲ-6>과 같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인식을 교사 전체 집단과 비교하면 경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을 보다 높이 인식하고 있다.

표 Ⅲ-6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19.9	19.5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	16.2	20.2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39.4	37.0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11.5	10.7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	11.5	11.5
기타	0.7	0.8
무응답	0.7	0.4
계	100.0(538)	100.0(262)



[그림 Ⅲ-3]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단위 : %)

(4)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의 장애 요인

무엇이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를 어렵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Ⅲ-7>과 같다.

표 Ⅲ-7 교사의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

(단위 : %)

구분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	χ ² (유의 확률)
전체		37.0	8.0	23.0	15.8	10.4	1.9	10.183 (0.178)
성별	남	38.0	8.4	22.8	17.7	6.8	2.1	
	여	36.2	7.6	23.3	14.3	13.3	1.7	
교직 경력별	5년이하	44.1	7.0	17.5	16.1	9.8	1.4	17.766 (0.664)
	6-15년이하	36.3	8.9	24.6	13.4	11.2	1.7	
	16-25년이하	30.8	7.7	22.3	21.5	10.8	2.3	

	26년이상	36.0	8.1	30.2	11.6	9.3	2.3	
지역별	서울	31.7	11.1	28.6	11.1	7.9	4.8	135.16 7 (0.025)
	부산	29.6	18.5	14.8	25.9	11.1	0.0	
	대구	63.6	0.0	13.6	0.0	4.5	4.5	
	인천	26.9	3.8	34.6	15.4	11.5	0.0	
	광주	52.9	8.8	17.6	5.9	8.8	2.9	
	대전	26.3	15.8	31.6	5.3	15.8	0.0	
	울산	57.6	3.0	9.1	15.2	15.2	0.0	
	경기	35.7	3.6	19.6	19.6	12.5	0.0	
	강원	34.3	11.4	20.0	20.0	8.6	2.9	
	충북	36.4	6.8	25.0	18.2	6.8	2.3	
	충남	47.2	5.6	13.9	19.4	8.3	0.0	
	전북	17.9	5.1	41.0	28.2	2.6	2.6	
	전남	30.0	0.0	40.0	20.0	0.0	10.0	
	경북	25.0	25.0	25.0	12.5	12.5	0.0	
	경남	36.2	8.6	20.7	15.5	17.2	1.7	
	제주	40.0	5.0	25.0	10.0	20.0	0.0	
지역 규모별	대도시	41.4	9.1	22.3	10.0	10.5	2.3	14.678 (0.400)
	중소도시	32.0	7.5	24.6	20.6	10.1	1.8	
	읍면지역	38.9	6.7	21.1	17.8	11.1	1.1	
권역별	수도권	32.4	6.9	26.2	15.2	10.3	2.1	30.457 (0.342)
	충청권	38.4	8.1	22.2	16.2	9.1	1.0	
	영남권	42.3	9.6	16.7	14.7	13.5	1.3	
	호남권	33.7	6.0	31.3	18.1	4.8	3.6	
	강원 제주권	36.4	9.1	21.8	16.4	12.7	1.8	
학교 급별	초등학교	31.8	6.5	28.2	15.3	12.9	0.6	26.261 (0.024)
	중학교	46.5	8.5	24.0	7.8	8.5	3.1	
	고등학교	35.6	8.8	18.8	20.5	9.6	2.1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35.9	8.3	24.5	15.4	11.2	1.3	15.589 (0.339)
	남학교	35.2	7.0	18.3	16.9	11.3	2.8	
	여학교	43.4	7.2	20.5	16.9	6.0	3.6	
설립 형태별	국·공립	37.0	8.1	23.0	15.4	11.6	1.4	7.828 (0.348)
	사립	37.1	7.8	23.3	17.2	6.0	3.4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37.9	7.8	22.9	13.1	9.8	2.6	11.523 (0.117)
	비실시	36.6	8.1	23.1	16.9	10.6	1.6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교사들은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37.0%)을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23.0%)를 들었다. 반면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8.0%)과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10.4%),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1.9%)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을 보였다.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 능력이나 방식, 전담 인력 보다는 학생을 지도할 시간의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교육현실 및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직 교사는 전체적인 반응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중학교 재직 교사는 학생지도 시간 부족(46.5%)과 가정 환경 요인(24.0%)으로 반응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재직 교사는 학생 지도 시간 부족(35.6%)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 위주 학교환경(20.5%)을 가정 환경 요인(18.8%)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위주 수업 운영이나 교과 집중이수제 등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 262명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표 Ⅲ-8>과 같다. 교사 전체 집단과 비교하면 학생지도 시간 부족, 지도 능력 및 방법 부족, 일관성 있는 지도 방식 부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여기는 교사일수록 학생지도의 물리적 시간 및 일관성 있는 지도능력과 방법의 부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	37.0	40.5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	8.0	9.2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23.0	19.8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 환경	15.8	13.4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10.4	10.3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	1.9	2.3
기타	2.8	3.8
무응답	1.1	0.8
계	100.0(538)	100.0(262)

(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의 모색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및 분석 결과는 <표 Ⅲ-9>와 같다.

표 Ⅲ-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단위 : %)

구분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가정, 경찰 등 관련기관 의 연계 지도	문화·예술 체육 등 청소년활 동 지원	입시와 경쟁위주 의 교육 정책 전환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X ² (유의 확률)
전체		28.3	22.7	17.8	4.8	15.1	9.9	
성별	남	33.3	16.9	16.0	4.2	17.3	11.4	15.552 (0.030)
	여	24.3	27.2	19.3	5.3	13.3	8.6	
교직 경력별	5년 이하	28.0	23.1	20.3	6.3	10.5	9.8	14.937 (0.826)
	6-15년이하	25.7	25.1	15.1	4.5	17.9	9.5	
	16-25년이하	30.0	17.7	20.8	4.6	16.2	10.0	
	26년이상	31.4	24.4	15.1	3.5	15.1	10.5	
지역별	서울	28.6	25.4	20.6	3.2	9.5	11.1	101.669 (0.574)
	부산	14.8	25.9	18.5	3.7	18.5	18.5	
	대구	63.6	9.1	9.1	0.0	13.6	4.5	
	인천	15.4	34.6	11.5	0.0	23.1	11.5	
	광주	38.2	20.6	5.9	14.7	8.8	8.8	
	대전	31.6	21.1	10.5	5.3	26.3	5.3	
	울산	21.2	21.2	30.3	3.0	9.1	15.2	
	경기	25.0	28.6	16.1	3.6	16.1	7.1	
	강원	28.6	25.7	22.9	2.9	8.6	11.4	
	충북	29.5	20.5	20.5	2.3	13.6	11.4	
	충남	22.2	13.9	16.7	8.3	19.4	16.7	
	전북	25.6	23.1	15.4	2.6	20.5	12.8	
	전남	30.0	10.0	10.0	0.0	40.0	10.0	
	경북	43.8	12.5	18.8	6.3	12.5	6.3	
	경남	25.9	25.9	17.2	8.6	17.2	3.4	
	제주	30.0	20.0	35.0	10.0	5.0	0.0	
지역 규모별	대도시	30.0	24.1	16.8	4.5	12.7	10.5	7.395 (0.918)
	중소도시	27.2	21.1	19.7	5.7	16.7	8.3	
	읍면지역	26.7	23.3	15.6	3.3	16.7	12.2	

권역별	수도권	24.8	28.3	17.2	2.8	14.5	9.7	21.164 (0.818)
	충청권	27.3	18.2	17.2	5.1	18.2	12.1	
	영남권	30.1	21.2	19.2	5.1	14.7	9.0	
	호남권	31.3	20.5	10.8	7.2	18.1	10.8	
	강원제주권	29.1	23.6	27.3	5.5	7.3	7.3	
학교급별	초등학교	23.5	28.2	16.5	3.5	17.1	8.8	22.436 (0.070)
	중학교	37.2	23.3	17.8	4.7	8.5	7.8	
	고등학교	26.8	18.4	18.8	5.9	17.2	11.7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28.9	23.2	19.0	4.9	14.6	8.1	11.016 (0.685)
	남학교	26.8	22.5	9.9	5.6	16.9	15.5	
	여학교	26.5	20.5	19.3	3.6	15.7	13.3	
설립 형태별	국·공립	26.5	23.5	19.0	4.5	15.2	10.0	5.440 (0.606)
	사립	34.5	19.8	13.8	6.0	14.7	9.5	
인권조례 실시 여부별	실시	29.4	25.5	15.7	5.9	11.8	9.2	8.641 (0.279)
	비실시	27.8	21.6	18.7	4.4	16.4	10.1	

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28.3%)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배치(22.7%)와 연계지도강화(17.8%), 교육정책 전환(15.1%)이 학교 폭력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 활동지원이나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는 학교 폭력 대처 및 예방 방안으로는 높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교사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높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권한이나 업무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는 현실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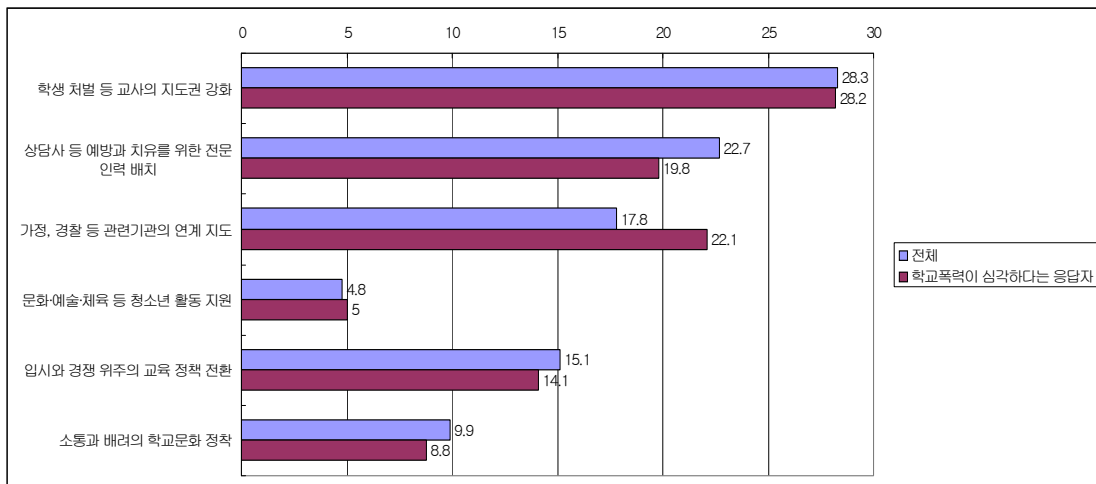
집단별 차이를 보면 무엇보다 성별에 의한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남자 교사들은 교사의 학생 지도권 강화(33.3%)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자교사는 전문인력 배치(27.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의 반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 낮다는 점이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 262명의 반응은 〈표 Ⅲ-10〉과 같다. 교사 전체의 반응과 전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가정 및 경찰 등과의 연계 지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Ⅲ-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28.3	28.2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22.7	19.8
가정,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 지도	17.8	22.1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	4.8	5.0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	15.1	14.1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	9.9	8.8
기타	1.1	1.5
무응답	0.4	0.4
계	100(538)	100.0(262)



[그림 Ⅲ-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와의 비교(단위 : %)

(6) 학교폭력 경감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상

그러면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교사들은 인식하는 것일까? <표Ⅲ-11>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모습에 대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표이다.

표 Ⅲ-11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

(단위 : %)

구분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 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민주적 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의 학교문화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χ^2 (유의 확률)
전체		61.0	15.2	10.6	0.9	2.8	6.7	
성별	남	62.9	14.3	8.4	1.7	4.2	5.1	13.651 (0.058)
	여	59.5	15.9	12.3	0.3	1.7	8.0	
교직 경력별	5년이하	55.9	14.7	14.0	0.7	4.2	9.1	29.596 (0.100)
	6-15년이하	63.7	14.0	8.9	1.1	2.8	6.7	
	16-25년이하	63.1	13.8	14.6	1.5	0.8	3.1	
	26년이상	60.5	20.9	2.3	0.0	3.5	8.1	
지역별	서울	55.6	27.0	9.5	0.0	0.0	4.8	91.579 (0.822)
	부산	66.7	11.1	11.1	3.7	3.7	3.7	
	대구	45.5	27.3	9.1	0.0	9.1	0.0	
	인천	50.0	7.7	19.2	3.8	0.0	11.5	
	광주	70.6	5.9	14.7	0.0	2.9	5.9	
	대전	73.7	15.8	5.3	0.0	.0	5.3	
	울산	63.6	9.1	21.2	0.0	.0	6.1	
	경기	66.1	10.7	8.9	0.0	3.6	7.1	
	강원	65.7	17.1	5.7	0.0	0.0	11.4	
	충북	52.3	15.9	11.4	2.3	2.3	6.8	
	충남	50.0	19.4	8.3	2.8	8.3	11.1	
	전북	69.2	10.3	10.3	0.0	5.1	5.1	
	전남	50.0	20.0	20.0	0.0	0.0	10.0	
	경북	62.5	18.8	6.3	0.0	6.3	6.3	
	경남	65.5	10.3	8.6	1.7	3.4	6.9	
	제주	60.0	25.0	5.0	0.0	0.0	5.0	
지역 규모별	대도시	60.5	16.4	12.7	0.9	1.4	5.5	14.596 (0.406)
	중소도시	65.4	13.2	7.9	0.4	3.9	7.0	
	읍면지역	51.1	17.8	12.2	2.2	3.3	8.9	
권역별	수도권	58.6	17.2	11.0	0.7	1.4	6.9	22.534 (0.756)
	충청권	55.6	17.2	9.1	2.0	4.0	8.1	
	영남권	62.2	13.5	11.5	1.3	3.8	5.1	
	호남권	67.5	9.6	13.3	0.0	3.6	6.0	
	강원 제주권	63.6	20.0	5.5	0.0	0.0	9.1	

학교급별	초등학교	63.5	14.7	7.6	0.6	2.4	9.4	9.179 (0.819)
	중학교	59.7	18.6	10.9	0.8	3.1	3.9	
	고등학교	59.8	13.8	12.6	1.3	2.9	6.3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	62.5	15.6	10.2	0.5	2.1	7.3	20.953 (0.103)
	남학교	47.9	15.5	15.5	2.8	5.6	5.6	
	여학교	65.1	13.3	8.4	1.2	3.6	4.8	
설립 형태별	국·공립	61.1	14.9	10.2	0.9	2.8	6.9	4.316 (0.743)
	사립	60.3	16.4	12.1	0.9	2.6	6.0	
인권 조례실시 여부별	실시	62.7	16.3	10.5	0.0	2.0	5.9	5.649 (0.581)
	비실시	60.3	14.8	10.6	1.3	3.1	7.0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문화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가장 필요하다는 반응이 61.0%로 압도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나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이 협력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 교사들이 높은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배려의 기반이 되는 상호 민주적 학교 문화나 학생 인권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수용이 저조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교사 변인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 262명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을 응답한 53명(전체응답자의 9.9%)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결과는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응답자 반응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응답자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61.0	60.7	69.8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15.2	16.0	5.7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10.6	11.8	9.4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0.9	0.4	1.9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2.8	2.3	11.3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6.7	6.1	1.9
기타	1.9	2.3	0.0
무응답	0.9	0.4	0.0
계	100.0(538)	100.0(262)	100.0(53)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와 교사 전체 집단을 비교하면 경향성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을 응답한 집단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을 중요한 방안으로 응답한 집단은 공동체적 학교문화와 민주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반응 빈도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학생인권존중의 문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교사 전문성 중시문화나 관련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존중되는 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응을 보였다.

교사 집단 내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에 대하여 성별, 교직경력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의 일반적인 준거에 의한 집단간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정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바람직한 학교문화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교사 내의 집단간 차이보다 교사와 다른 집단 예를 들어 학생이나 학부모 집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에 대한 교사내 집단간의 차이를 드러내려면 성, 지역, 학교급, 교직 경력 등의 일반적인 준거보다는 다른 준거들이 정교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인식

학교문화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및 협력 정도에 대한 이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인식, 권리 갈등 시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1로, ‘매우 심각하다’를 5로 입력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각 척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배경 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척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토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을 토대로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변인이 많지 않아 변인별 차이를 보이는 집단별 반응은 별도로 제시하고, 우선 전체적인 경향만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반응 빈도 및 평균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그렇다 응답 빈도	평균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 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1)		
1) 우리 학교 학생들은 친구들과 서로 친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10.2	64.3	22.9	2.4	0.0	74.5	3.85
2)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와 학생 지도권을 존중한다	11.7	54.1	26.4	7.2	0.6	65.8	3.69
3) 학부모는 나의 학생 지도에 잘 협력한다	8.0	51.1	34.0	5.9	0.6	59.1	3.62
4) 나는 학생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개입하여 해결해준다	20.1	66.5	11.0	2.4	0.0	86.6	4.04
5) 나는 학부모와 잘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17.5	65.1	15.4	2.0	0.0	82.6	3.97
6)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41.3	47.2	8.4	2.4	0.4	88.5	4.29
7)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개선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5.6	16.7	35.1	33.5	9.1	22.3	2.76
8)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3.2	15.4	36.1	35.3	10.0	18.6	2.66
9)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늘어나고 교사의 교육권이 약화될 것이다	11.3	42.8	27.9	14.9	3.0	54.1	3.46
10) 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7.8	52.2	34.8	4.6	0.6	60.0	3.63
11)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11.9	55.0	19.1	11.9	1.9	66.9	3.65
12) 학생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2.0	22.5	38.3	28.4	8.4	24.5	2.83

13)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대리하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보다 우선한다	12.5	49.6	23.2	12.6	1.5	62.1	3.63
14) 교사의 학생지도에서 교사의 결정권보다 학부모의 요구가 우선한다	1.3	13.8	28.8	46.5	9.1	15.1	2.55
15)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기초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7.4	47.8	30.9	10.6	3.3	55.2	3.45

우선 전체적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를 합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88.5%에 달하고, 반응을 5점 척도로 점수한 평균값도 4.29에 달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구성원의 관계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인식

그런데 교사들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74.5%)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와 학생지도권을 존중(65.8%)하거나,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잘 협력(59.1%)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반응을 보였다. 5점 척도화한 평균도 각각 3.65와 3.62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교사 자신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개입하여 해결해주며(86.6%), 학부모들과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82.6%)고 하여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응이 80%를 넘어서며 평균값도 각각 4.04와 3.9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학생들은 비교적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으며,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부모와 의논하고 의견을 존중하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교사의 지도와 권위를 존중하거나 잘 따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 즉 교육공동체 주체 서로간의 존중과 협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값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도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양했다. 우선 학생들이 사이좋게 지낸다에 대해서는 성별, 지역규모별,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14>에 의하면 여자 교사보다는 남자 교사가 학생들이 친하게 지낸다고 인식하며, 재직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가 적을수록 친하게 지낸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여학교, 남학교, 남녀공학 순서로 학생들 사이가 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III-14 우리학교 학생들은 서로 친하고 사이 좋게 지낸다-집단별 평균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	237	3.93	0.679	9.216	0.003
	여	301	3.76	0.651		
지역규모별	대도시	220	3.74	0.627	4.841	0.008
	중소도시	228	3.86	0.711		
	읍면지역	90	3.99	0.627		
학교유형별	남녀공학	384	3.77	0.701	7.229	0.001
	남학교	71	3.94	0.583		
	여학교	83	4.05	0.516		

학생들의 교사 지도권을 존중에 대해서는 교직경력별,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설립형태별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표 III-15>에 의하면 교직경력 6~15년 사이의 교사 응답 평균은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직경력 26년 이상의 교사들은 응답 평균 3.63으로 제일 낮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적을수록, 즉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지도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지도권을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 형태별에서도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지도권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III-15 우리학교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와 학생 지도권을 존중한다-집단별 평균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교직경력별	5년이하	143	3.76	0.839	4.395	0.005
	6-15년이하	179	3.80	0.696		
	16-25년이하	130	3.50	0.800		
	26년이상	86	3.63	0.841		
지역규모별	대도시	220	3.61	0.766	4.366	0.013
	중소도시	228	3.69	0.804		
	읍면지역	90	3.90	0.794		
학교급별	초등학교	170	3.95	0.673	13.591	0.000
	중학교	129	3.56	0.780		
	고등학교	239	3.58	0.836		
설립 형태별	국·공립	422	3.76	0.771	16.452	0.000
	사립	116	3.43	0.815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값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것은 학교급에 따른 차이이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관계에 대한 학교급별 평균 차이

구분	5점 척도 평균			유의확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와 학생 지도권을 존중한다	3.95	3.56	3.58	0.000
3) 학부모는 나의 학생 지도에 잘 협력한다	3.85	3.57	3.49	0.000
4) 나는 학생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개입하여 해결해준다	4.29	4.00	3.89	0.000
5) 나는 학부모와 잘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4.14	4.02	3.85	0.000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에서 학생 및 학부모는 교사의 지도권을 존중하고 잘 협력하며, 교사는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을 적절히 지도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급이 낮을수록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나 자신의 지도에 대해 만족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인식

학생인권과 교권,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학생인권과 교사·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이 3.46점이다. 그리고 54.1%의 교사가 그렇다고 답하여, 학생인권의 강화와 교권의 약화가 연관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개선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2.3%,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8.6%에 그치고 있다. 5점 척도 평균도 각각 2.76, 2.66으로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해지지만, 교사 학생 관계의 개선이나 학교폭력 경감에는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살펴보면, 60%의 교사가 학생인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5점 척도 평균도 3.6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학생의 인권 제한 대해서는 교사의 66.9%가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5점

척도 평균도 3.65에 달하여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생집단 간의 권리 충돌시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교권에 우선한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5점 척도 반응 평균도 2.83으로 낮은 편이다. 학생인권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 학생인권 제한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이 높고,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한다는 반응 비율은 낮아, 학생인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교권, 학부모의 권리, 학생 인권 즉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지도에서 교권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육권이 학부모의 권리보다 우선한다에 62.1%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학부모의 요구가 교사의 결정권보다 우선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15.1%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5점 척도 평균을 비교하면 교권의 학부모 권리 우선이 3.63, 학생인권의 교권 우선이 2.83이다.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지도권으로 대표되는 교권이 학생인권이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인식에 대한 응답의 빈도 및 평균값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응답은 학생인권과 학교 폭력 감소, 학생인권과 학생 교사 관계 개선, 교사 지도권 보다 학부모의 요구 우선, 학생인권 우선 등의 항목이다. 교사들의 학생인권 및 학부모의 교육요구 및 참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 및 참여권과 교사의 지도 및 결정권이 갈등하거나 충돌할 경우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을 기초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은 55.2%로 과반을 약간 상회하는 빈도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갈등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학생인권 및 학습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값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도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았다. 우선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와 학생인권 제한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교직경력별, 인권조례 실시 지역 여부별이다. 분석 결과는 <표 Ⅲ-17>과 <표 Ⅲ-18>이다.

표 Ⅲ-17 학생 인권 이해-집단별 평균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	237	3.73	0.697	9.885	0.002
	여	301	3.53	0.728		
교직경력별	5년 이하	143	3.52	0.804	3.535	0.015
	6-15년	179	3.59	0.685		
	16-25년	130	3.65	0.645		
	26년 이상	86	3.83	0.723		
인권조례실시 여부별	실시	153	3.80	0.672	13.136	0.000
	비실시	385	3.55	0.728		

표 Ⅲ-18 학생 인권 제한 가능 여부 -집단별 평균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	237	3.73	0.968	3.321	0.069
	여	301	3.58	0.904		
교직경력별	5년 이하	143	3.50	0.934	3.951	0.008
	6-15년	179	3.56	0.983		
	16-25년	130	3.77	0.773		
	26년 이상	86	3.86	1.008		
인권조례실시 여부별	실시	153	3.79	0.922	5.380	0.021
	비실시	385	3.58	0.935		

학생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질문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질문은 인권적 관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상 상반되는 질문일수 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여자교사보다는 남자교사가 학생인권을 더 잘 이해하고 있고, 학생 인권 제한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 경력별로 보면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학생인권 조례 실시 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이다. 학생인권 조례 실시 지역과 비실시 지역을 나누어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거의 모든 질문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와 학생인권 제한 가능 여부 문항에서만 5점 척도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에서 학생인권 조례 실시 지역이 평균 3.80점으로 비실시지역의 3.55보다 높았다. 그리고 학생인권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학생인권 조례 실시 지역이 평균 3.79점으로 비실시지역의 3.58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인권조례 실시지역의 교사가

비실시지역 교사보다 학생인권 내용에 대한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학생인권 제한에 대해서도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향후 학생인권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비폭력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 538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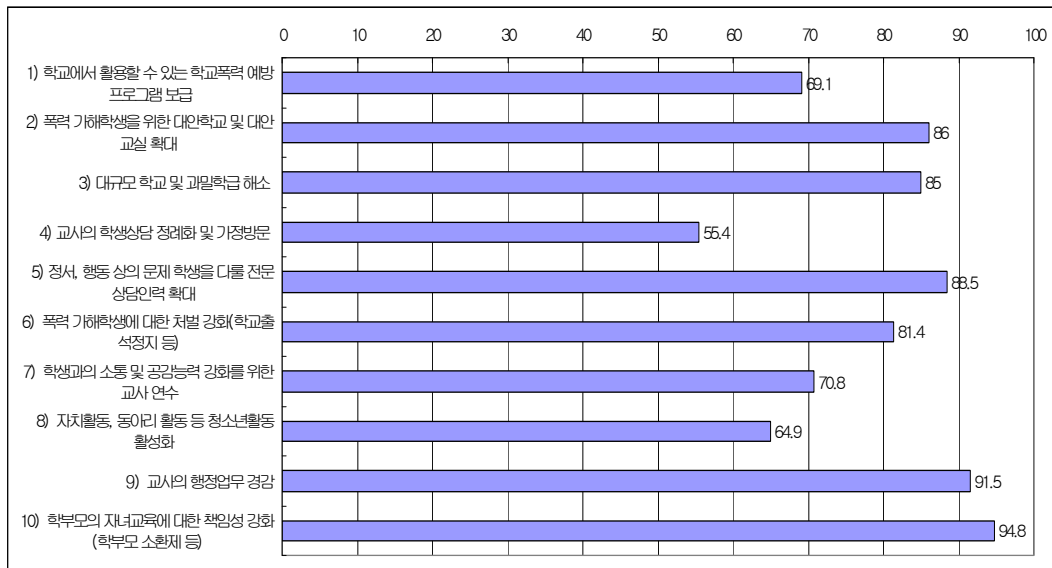
표 Ⅲ-19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단위 : %)

구분	빈도 분석 결과					중요 하다 응답 빈도	평균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급	14.3	54.8	26.0	4.3	0.2	69.1	3.81
2)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34.9	51.1	10.4	3.0	0.6	86	4.17
3)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43.9	41.1	12.1	2.6	0.4	85	4.25
4) 교사의 학생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	6.9	48.5	35.7	8.2	0.6	55.4	3.53
5)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다룰 전문상담인력 확대	40.5	48.0	8.9	2.0	0.2	88.5	4.28
6)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41.1	40.3	13.6	3.9	0.7	81.4	4.19
7)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17.1	53.7	23.8	4.8	0.2	70.8	3.84
8)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21.2	43.7	30.5	3.3	1.1	64.9	3.82
9)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54.1	37.4	7.4	0.9	0.0	91.5	4.45
10)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60.2	34.6	4.3	0.4	0.4	94.8	4.55

정책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5점 척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부모 소환제 등을 포함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였다. 5점 척도 평균 4.55점으로 상당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도 94.8%에 육박하였다. 다음으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인 정책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4.45), 전문 상담 인력 확대(4.28),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4.25),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4.19),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4.17)의 순으로 정책 사안 각각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사 연수 강화(3.84), 청소년활동 활성화(3.82), 학교 폭력 예방프로그램 보급(3.81) 등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서 단골로 강조되는 정책들은 보통이다 수준의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 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은 가장 낮은 선호(3.53)를 보이고 있는 정책사안으로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각 정책별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반응한 응답 빈도를 기준으로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Ⅲ-5]와 같다.



[그림 Ⅲ-5] 폭력없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단위 : %)

제 4 장

학부모와 교사 집단 비교분석

1.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인식
3.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 4 장

학부모와 교사 집단 비교분석

학교폭력과 학교문화에 대한 본 조사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지를 학부모 500명 대상으로는 웹 설문조사를, 교사 대상 538명 대상으로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표본 크기 및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을 달리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는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집단 간 반응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의 반응 빈도를 정리하고,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질문에 대한 응답 빈도를 토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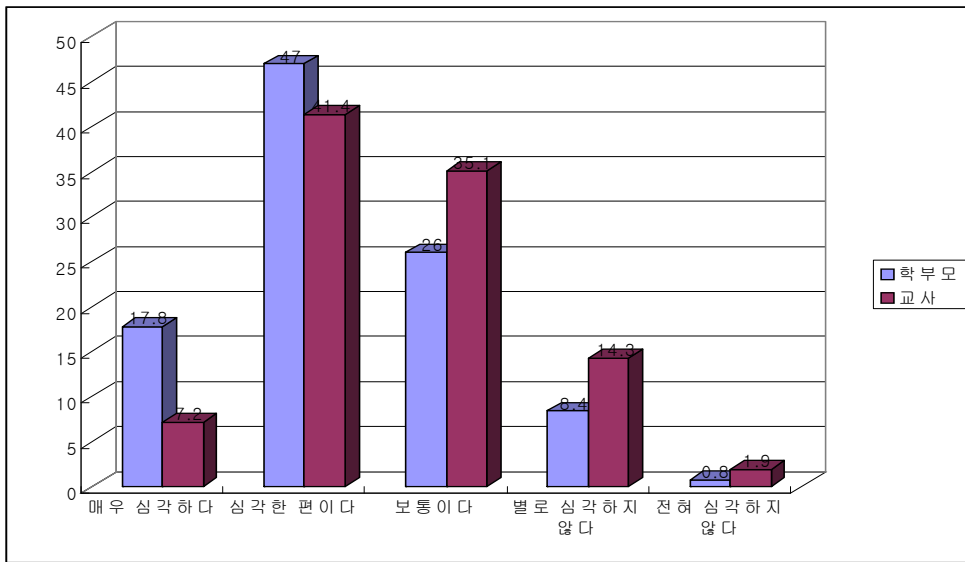
1.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1)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

학교 폭력의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면, <표 IV-1>과 [그림 IV-1]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보다 학부모들이 훨씬 더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48.6%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들은 64.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V-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구분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χ^2 (유의확률)
학부모	N	89	235	130	42	4	42.289 (0.000)
	%	17.8	47.0	26.0	8.4	0.8	
교사	N	39	223	189	77	10	
	%	7.2	41.4	35.1	14.3	1.9	



[그림 IV-1] 학교 폭력의 심각한 정도-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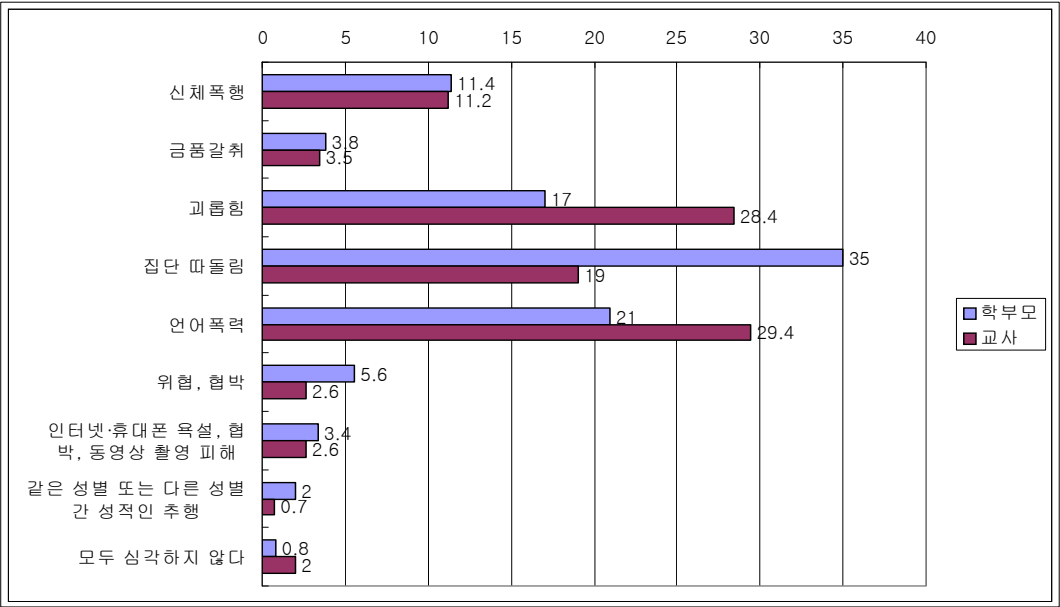
2)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학교 폭력의 심각한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도 <표 IV-2>와 [그림 IV-2]에 나타나듯이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언어폭력과 괴롭힘이 심각한 유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괴롭힘에 대하여 학부모와 교사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학교폭력으로 보느냐와 연관된 문제로 집단따돌림을 심각한 학교 폭력 유형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아니면 집단따돌림이 교사의 시야에서

보면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학부모가 자녀 혹은 재직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 민감성을 향상하는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표 IV-2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구분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괴롭힘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위협, 협박	인터넷·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피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	모두 심각하지 않다	χ ² (유의확률)
학부모	N	57	19	85	175	105	28	17	10	4	61.911 (0.000)
	%	11.4	3.8	17.0	35.0	21.0	5.6	3.4	2.0	0.8	
교사	N	60	19	153	102	158	14	14	4	11	
	%	11.2	3.5	28.4	19.0	29.4	2.6	2.6	0.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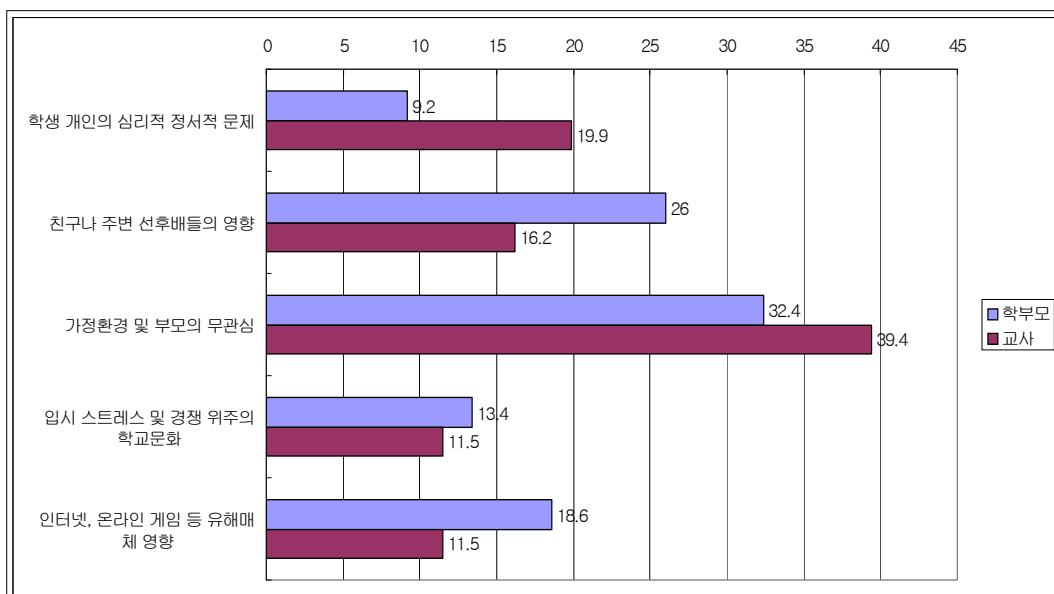
[그림 IV-2]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의 원인 혹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또래집단의 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청소년 집단 문화, 학교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학부모와 교사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IV-3>과 [그림 IV-3]과 같다.

표 IV-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구분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매체 영향	χ^2 (유의확률)
학부모	N	46	130	162	67	93	49.261 (0.000)
	%	9.2	26.0	32.4	13.4	18.6	
교사	N	107	87	212	62	62	
	%	19.9	16.2	39.4	11.5	11.5	



[그림 IV-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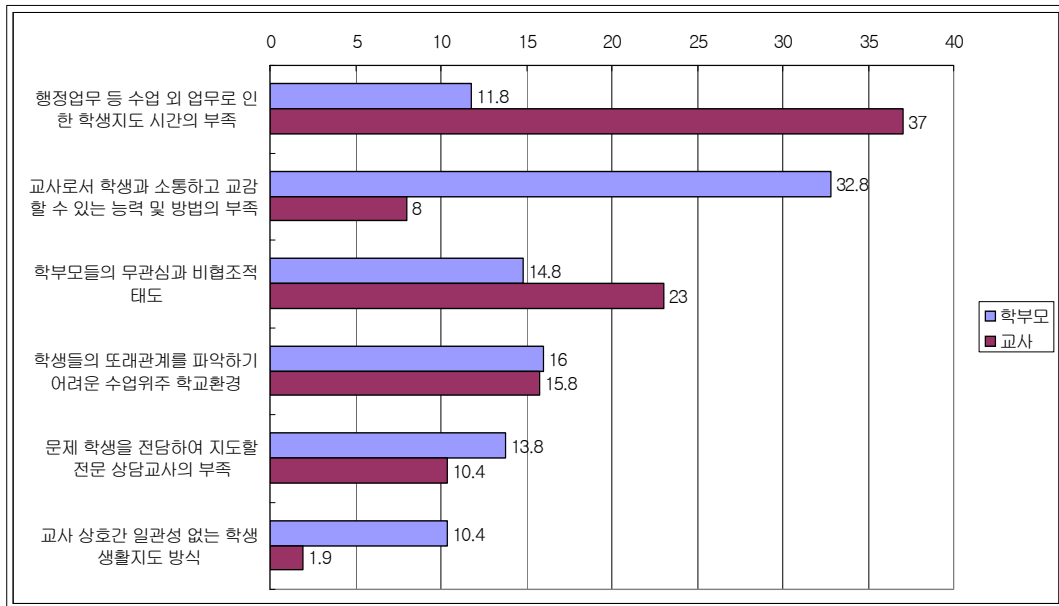
교사들은 학부모에 비해 학교 폭력은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과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부모들은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못지않게 친구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교사들은 가정과 학생 개인의 요인을 중시한다면 학부모는 학생 개인 요인보다 가정을 포함한 주변인과 주변 환경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와도 연결된다.

4) 학교 폭력 지도의 장애 요인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지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부모와 교사 집단 사이에 <표 IV-4> 및 [그림 IV-4]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표 IV-4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구분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	학부모 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학생들의 또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	χ^2 (유의확률)
학부모	N	59	164	74	80	69	52	205.164 (0.000)
	%	11.8	32.8	14.8	16.0	13.8	10.4	
교사	N	199	43	124	85	56	10	
	%	37.0	8.0	23.0	15.8	10.4	1.9	



[그림 IV-4] 학교폭력 지도 장애 요인-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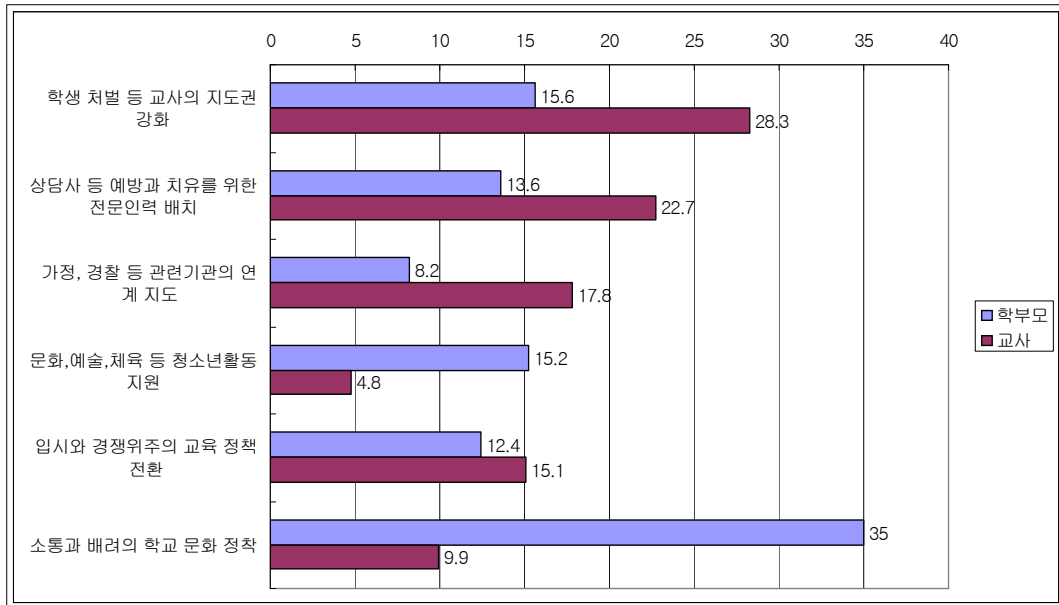
교사들은 학생 지도 시간 부족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택하였는데 반해, 학부모들은 교사의 소통과 교감 능력과 방법의 부족을 가장 큰 지도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부족과 학부모들의 비협조, 수업환경의 열악 등이 중요한 지도 장애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교사의 소통과 교감 능력과 방법의 부족함을 느끼고, 전문인력 부족이나 비일관적인 지도방식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 및 교사의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지도 시간 부족이나 전문상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학교 폭력 지도의 어려움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집단 사이의 인식 차이는 <표 IV-5> 및 [그림 IV-5]와 같다.

표 IV-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구분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가정,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 지도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	χ^2 (유의확률)
학부모	N	78	68	41	76	62	175	160.375 (0.000)
	%	15.6	13.6	8.2	15.2	12.4	35.0	
교사	N	152	122	96	26	81	53	
	%	28.3	22.7	17.8	4.8	15.1	9.9	



[그림 IV-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처벌 등 교사들의 지도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학부모들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우선 순위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주할만 할 필요가 있다.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전환에 대해서만 비슷한 반응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 다른 정책은 최소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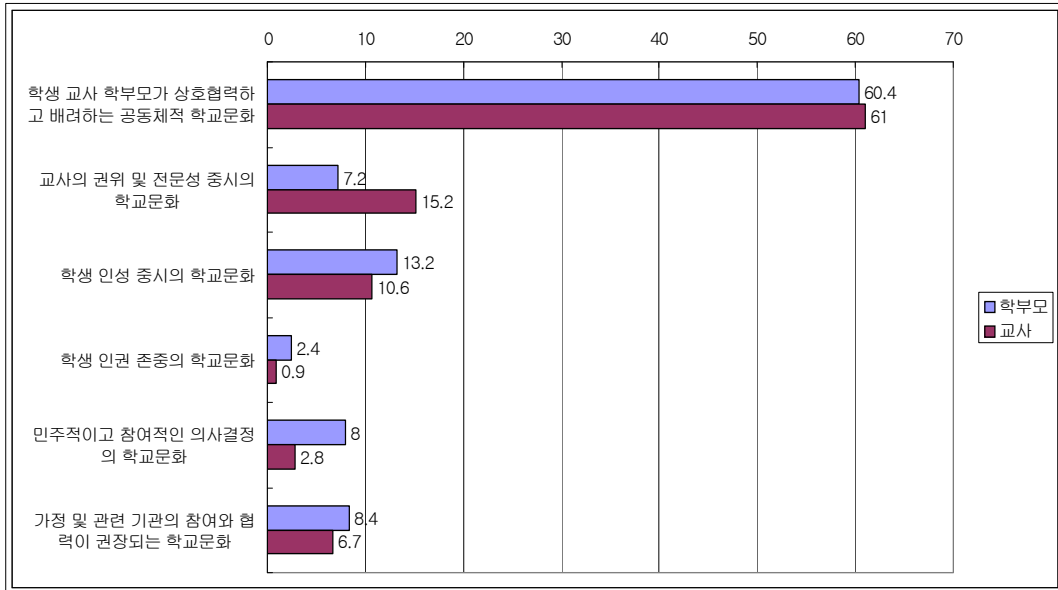
현격하다. 가정 경찰 등 관련기기관의 연계 지도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17.8%의 반응을 보였으나 학부모는 8.2%의 반응을 보여 가정이나 경찰과 연계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에 비해 교사들은 4.8%의 가장 낮은 비율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청소년 활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달가워하지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는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방안의 적절성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6) 학교폭력 경감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상

학교 폭력을 경감하기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으로는 학부모와 교사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반응하였다. 학부모와 교사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 <표 IV-6> 및 [그림 IV-6]과 같다.

표 IV-6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구분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하 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민주적 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의 학교문화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χ^2 (유의확률)
학부모	N	302	36	66	12	40	42	44.325 (0.000)
	%	60.4	7.2	13.2	2.4	8.0	8.4	
교사	N	328	82	57	5	15	36	
	%	61.0	15.2	10.6	.9	2.8	6.7	



[그림 IV-6]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그러나 교사들은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에도 적지 않은 반응을 하였으며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인성중시의 학교문화를 들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학생인권 존중의 문화에 아주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널리 수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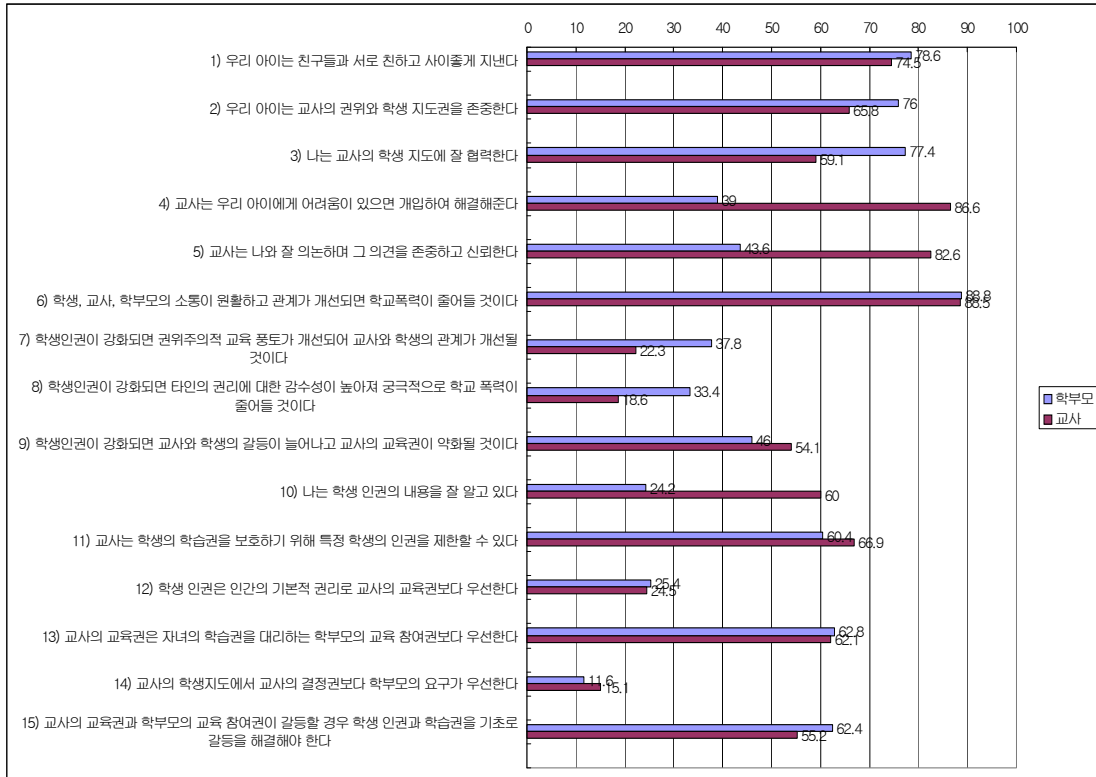
학교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 친밀도와 역할 수행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 및 존중의 정도는 학교 폭력 경감 및 소통과 배려의 교육공동체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기대와 권리의 충돌 및 갈등 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친밀 및 신뢰 정도, 권리에 대한 인식 결과 및 그 차이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IV-7> 및 [그림 IV-7]과 같다.

표 IV-7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단위 : %)

구분	집단	그렇다 응답빈도	평균	반응 빈도					X2 (유의확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서로 친하고 사 이좋게 지낸다	학부모	78.6	3.94	18.0	60.6	18.8	2.4	0.2	15.843 (0.007)
	교사	74.5	3.85	10.2	64.3	22.9	2.4	0.0	
2) 우리 아이는 교사의 권위와 학생 지도 권을 존중한다	학부모	76.0	3.87	15.2	60.8	20.0	3.8	0.2	15.315 (0.004)
	교사	65.8	3.69	11.7	54.1	26.4	7.2	0.6	
3) 나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잘 협력한다	학부모	77.4	3.91	16.8	60.0	21.0	1.8	0.4	49.225 (0.000)
	교사	59.1	3.62	8.0	51.1	34.0	5.9	0.6	
4) 교사는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으 면 개입하여 해결해준다	학부모	39.0	3.26	3.8	35.2	46.0	12.6	2.4	269.445 (0.000)
	교사	86.6	4.04	20.1	66.5	11.0	2.4	0.0	
5) 교사는 나와 잘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학부모	43.6	3.33	5.2	38.4	42.0	12.8	1.6	183.949 (0.000)
	교사	82.6	3.97	17.5	65.1	15.4	2.0	0.0	
6)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학부모	88.8	4.12	28.0	60.8	7.4	2.8	1.0	25.802 (0.000)
	교사	88.5	4.29	41.3	47.2	8.4	2.4	0.4	
7)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개선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가 개선될 것이다	학부모	37.8	3.05	4.4	33.4	31.4	24.8	6.0	40.809 (0.000)
	교사	22.3	2.76	5.6	16.7	35.1	33.5	9.1	
8)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 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학부모	33.4	3.00	5.0	28.4	33.4	27.6	5.6	34.157 (0.000)
	교사	18.6	2.66	3.2	15.4	36.1	35.3	10.0	
9)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늘어나고 교사의 교육권이 약 화될 것이다	학부모	46.0	3.25	9.2	36.8	26.6	24.4	3.0	16.631 (0.005)
	교사	54.1	3.46	11.3	42.8	27.9	14.9	3.0	
10) 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 다	학부모	24.2	3.05	2.8	21.4	55.8	18.2	1.8	149.555 (0.000)
	교사	60.0	3.63	7.8	52.2	34.8	4.6	0.6	
11)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학부모	60.4	3.51	7.2	53.2	24.8	13.0	1.8	11.068 (0.050)
	교사	66.9	3.65	11.9	55.0	19.1	11.9	1.9	
12) 학생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학부모	25.4	2.86	3.2	22.2	38.0	30.2	6.4	4.827 (0.437)
	교사	24.5	2.83	2.0	22.5	38.3	28.4	8.4	
13)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대 리하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보다 우 선한다	학부모	62.8	3.59	7.8	55.0	26.2	10.6	0.4	14.743 (0.012)
	교사	62.1	3.63	12.5	49.6	23.2	12.6	1.5	
14) 교사의 학생지도에서 교사의 결정권보 다 학부모의 요구가 우선한다	학부모	11.6	2.50	1.2	10.4	31.4	51.2	5.8	10.754 (0.056)
	교사	15.1	2.55	1.3	13.8	28.8	46.5	9.1	
15)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 인권과 학습 권을 기초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학부모	62.4	3.57	4.6	57.8	28.6	8.0	1.0	17.134 (0.002)
	교사	55.2	3.45	7.4	47.8	30.9	10.6	3.3	



[그림 IV-7]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인식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교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76.0%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사의 6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교권 존중에 대해 5점 척도 평균을 보면 학부모 3.87점, 교사 3.69점으로 보통이다 보다는 그렇다에 가깝지만, 교사의 경우 교권이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은 교사의 2/3 정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교사와 학부모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이다. 학부모의 76.8%가 교사의 학생지도에 잘 협력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사는 59.1%만이 학부모가 잘 협력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개입하여 적절히 잘 지도한다에 대해 39.0%만이 그렇다고 하였으나 교사는 8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 학부모는 43.6%만이 교사가 학부모와 잘 의논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사는 82.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협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보다 교사의 학생지도와 학부모 의견존중에 대한 차이의 폭이 훨씬 크다. 이는 학교 교육 혹은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평가가 학부모의 인식에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상대방의 역할 수행에 대해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통계적으로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이 교육공동체구성원의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88% 이상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실마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사의 경우 41.3%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관계 개선이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2)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인식

학생인권과 교사 학생 관계, 학교 폭력, 교권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사의 집단간 차이는 상당하였다. 학부모의 1/3 정도가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 학생 관계가 개선되거나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나, 교사의 1/5 내외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해진다는 생각은 학부모와 교사를 합한 전체로 보면 1/2 정도가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비율은 37.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22.3%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 되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비율은 33.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였다. 이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18.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에 달하였다. 학생인권과 교사 학생 관계 및 학교폭력의 연관성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는 미세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학부모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학생의 관계가 개선되고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응이 더 많은 반면,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또한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대해서 학부모의 27.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는 1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54.1%가 교권이 약화된다고 본다면 약화되지 않는다는 17.9%에 그쳐,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해진다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널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60%이상이 학생인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교사 집단이나, 24.2%이 그렇다고 응답한 학부모 집단이나 권리 관계 인식에서 전체적인 경향상의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두 집단 모두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세(학부모 60.4%, 교사 66.9%)하였으며,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한다는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학부모 교사 모두 36.6%로 더 높았다. 또 교사의 교육권이 학부모의 참여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2.8%, 교사의 62.1%가 지지하였고, 또 교사의 결정권보다 학부모의 요구가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57%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에 대한 반응 경향을 정리하면,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인권을 기초로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이 학부모 62.4%, 교사 55.2%로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학생인권 보다는 교사의 교육권이,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나 요구보다는 교사의 교육권이나 결정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주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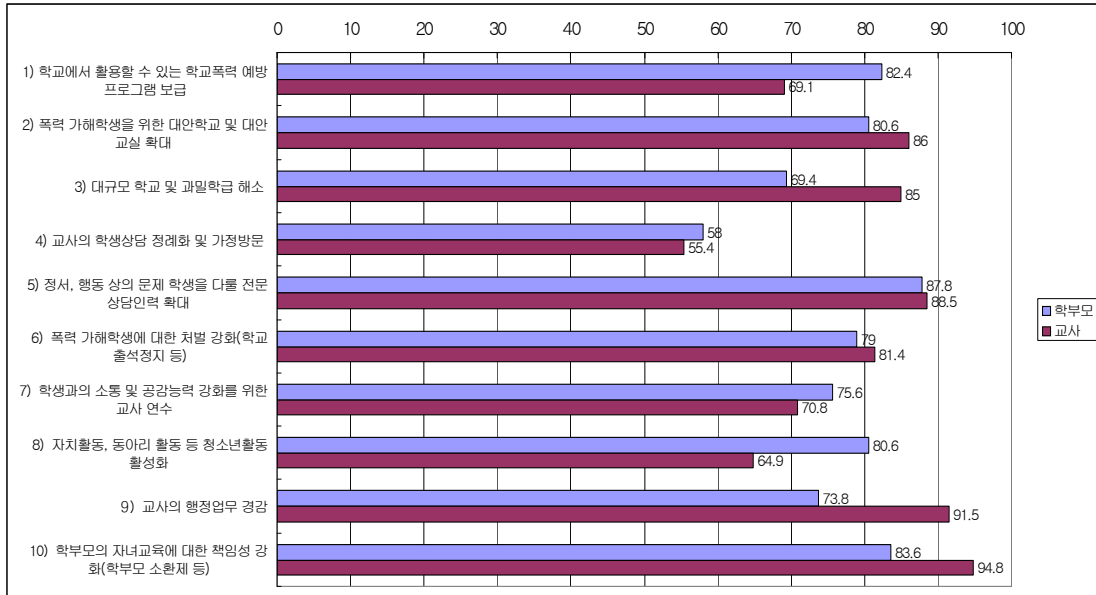
앞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에 교사와 학부모의 이러한 인식이 또 하나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의 인식과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역할수행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격차가, 만약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에 대한 학생과 어른 사이의 인식 격차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소통과 배려의 교육공동체 문화의 형성 기반은 너무 허약해 질 것이 때문이다.

3. 폭력 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반응 결과를 정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그림 IV-8]과 같다.

표 IV-8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 (단위 : %)

구분	집단	중요하다 응답 빈도	평균	빈도 분석 결과					X2 (유의확률)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급	학부모	82.4	4.00	20.2	62.2	15.4	2.0	0.2	27.716 (0.000)
	교사	69.1	3.81	14.3	54.8	26.0	4.3	0.2	
2)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학부모	80.6	4.02	25.4	55.2	16.2	3.0	0.2	16.039 (0.003)
	교사	86.0	4.17	34.9	51.1	10.4	3.0	0.6	
3)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학부모	69.4	3.78	15.2	54.2	24.2	5.8	0.6	108.179 (0.000)
	교사	85.0	4.25	43.9	41.1	12.1	2.6	0.4	
4) 교사의 학생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	학부모	58.0	3.60	8.8	49.2	35.8	5.6	0.6	4.675 (0.457)
	교사	55.4	3.53	6.9	48.5	35.7	8.2	0.6	
5)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다룰 전문상담인력 확대	학부모	87.8	4.17	30.6	57.2	11.0	0.8	0.4	17.537 (0.004)
	교사	88.5	4.28	40.5	48.0	8.9	2.0	0.2	
6)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학부모	79.0	4.07	31.4	47.6	17.4	3.6	0.0	17.894 (0.003)
	교사	81.4	4.19	41.1	40.3	13.6	3.9	0.7	
7)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학부모	75.6	3.93	21.6	54.0	20.6	3.0	0.8	10.005 (0.075)
	교사	70.8	3.84	17.1	53.7	23.8	4.8	0.2	
8)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학부모	80.6	4.02	24.4	56.2	17.4	1.6	0.4	33.493 (0.000)
	교사	64.9	3.82	21.2	43.7	30.5	3.3	1.1	
9)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학부모	73.8	3.85	17.2	56.6	21.2	4.2	0.8	168.882 (0.000)
	교사	91.5	4.45	54.1	37.4	7.4	0.9	0.0	
10)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학부모	83.6	4.06	25.0	58.6	14.2	1.4	0.8	139.851 (0.000)
	교사	94.8	4.55	60.2	34.6	4.3	0.4	0.4	



[그림 IV-8] 폭력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학부모 교사 집단 비교(단위 : %)

학부모와 교사의 반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정책은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이다.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지도의 장애 요인으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을 가장 많이 응답했듯이 행정업무 경감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91.5%의 교사들이 반응한 반면 학부모들은 73.8%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청소년 활동 활성화는 80.6%의 학부모들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교사는 64.9%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보다 학부모들이 더욱 선호하는 정책은 청소년활동 활성화, 교사연수, 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프로그램 쪽이다. 반면 학부모보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것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학부모 소환제 등의 학부모 책임 강화,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의 제도개혁 정책이었다.

제시된 모든 정책들이 5점 척도에서 평균 3.5 이상의 중요도 반응을 얻었으나, 학부모와 교사 모두 교사의 학생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단별 정책 요구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앞으로 어느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1. 요약
2. 결론

제 5 장 결 론

1. 요 약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정도를 드러내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관계, 역할, 권리 등에 대한 인식 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바람직한 학교문화상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학교 폭력 및 교육공동체구성원의 관계와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학부모 혹은 교사 내의 어떠한 변인별 차이보다 두 표본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 점은 학교폭력과 교육공동체구성원의 관계, 학교문화에 대하여 학부모 혹은 교사 집단 내 변인별 인식의 차이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에 주목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를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격차가 크다.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보다 학부모들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교사들은 48.6%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들은 64.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와 교사 집단 내의 성별, 지역별, 교육경력별, 학교급별 등의 집단별 차이보다 두드러진 차이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가능하다. 우선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2008년 28.6%, 2009년 32.4%, 2010년 38.1%, 2011년 41.7%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심각성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의 심각성 인식은 학생들의 인식과 유사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문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학생지도 장애요인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은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과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부모들은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못지 않게 친구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교사들은 가정과 학생 개인 요인을 중시한다면 학부모는 학생 개인 요인보다 가정환경을 포함하여 친구관계, 인터넷 게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학생처벌 등 교사들의 지도권 강화(28.3%)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전문인력 배치(22.7%), 가정·경찰 등과의 연계지도(17.6%)를 꼽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35.0%)에 압도적으로 많이 반응하였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15.6%), 상담전문인력 배치(13.6%)를 주요 대처방안으로 꼽고 있지만 교사들에 비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졌다. 학부모들은 교사들보다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청소년활동 지원(15.2%)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이 중시한 가정·경찰과의 연계지도에는 훨씬 소극적이었다.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은 소통과 배려, 청소년활동 등 교육적 조치를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대처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교사들은 학생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상담전문인력 배치, 가정·경찰과의 연계지도 등 처벌적 조치와 상담인력 보강 등 제도적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학교 폭력 지도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차이는 두드러졌는데, 교사들은 학생 지도 시간 부족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택하였는데 반해, 학부모들은 교사의 소통과 교감 능력과 방법의 부족을 가장 큰 지도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처방안, 학교폭력 지도의 장애요인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해결 시 구성원 간 갈등요인이 잠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교사들은 폭력의 원인을 가정과 학생 개인에 두고 있으며 그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권 강화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가정과 학생 개인에 학교폭력의 책임을 미루면서 학생들과 소통·교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능력을 연수 등을 통해 보강한다거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등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생각도 없이 오직 제도적 보강만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학부모들로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태도가 학교폭력을 온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학교폭력대책 수립 시에는 이러한 인식격차를 고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원하는 해결방향과 교사들이 지향하는 해결방향이 같등하게 된다면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 경감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상으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압도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학부모 60.4%, 교사 61%)를 꼽았다. 교사들은 그 다음으로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15.2%)를 꼽았지만 학부모의 반응(7.2%)은 냉랭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인성중시의 학교문화’(13.2%)를 그 다음으로 중시했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원하지만 교사들은 전문성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학부모들은 학생인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학교문화를 원하고 있었다. 양 집단 모두 학생인권존중의 학교문화에 대해서는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을 둘러싼 교사집단 내부의 의견차이가 있다. 먼저 심각하게 인식하는 교사집단과 그렇지 않은 교사집단 간에 학교폭력의 장애요인, 예방 및 대처방안, 바람직한 학교문화상을 두고 의견차이가 있다.

학교폭력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교사집단일수록 학교폭력지도의 장애요인을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시간 부족’(40.5%)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대처방안에서도 전체집단보다 ‘가정·경찰과의 연계지도’(22.1%)에 대한 응답이 많다. 전체적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정착’에 대한 반응은 아주 낮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교사집단은 전체집단이나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정착’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하는 응답자보다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를 바람직한 문화로 응답하는 경향이 더 높으며 학생인성을 중시의 학교문화(11.6%)에 대한 반응도 약간 높다. 반면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대처방안으로 제시하는 응답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69.8%)를 바람직한 학교문화라는 응답이 더 많으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학교문화’(11.3%)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더 많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해결 및 대처방안에 있어 교사집단 내부 간 차이는 학생지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 대처에 있어 교사집단 내부의 의견조율과 화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도와 역할수행에 대한 신뢰도 등의 관계 인식에 대한 차이도 드러났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생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생이 교권을 존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6.0%, 교사의 65.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학부모 보다 동의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양 집단 모두 학생들의 교권을 존중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교권 무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

여섯째,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와 학부모간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자신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상대방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해 교사가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개입하여 적절히 잘 지도한다에 대해 39.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교사가 학부모와 잘 의논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서는 43.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절반 이상의 학부모가 교사의 학생지도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 수행에 대해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되고,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가?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 학교폭력,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이론적으로 혹은 논리 정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최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계기로 일어난 교육계의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가가 관심사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 보다 높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3.4%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33.2%보다 1% 높다. 또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대해서 학부모의 46%는 그렇다, 27.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요약하면 학부모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높지만 과반수 이상이 되지는 못했다. 반면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거의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약화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교사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3%이고, 학생인권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6%이다. 반면 54.1%의 교사가 학생인권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고 응답했다. 요약하면 교사들은 학생인권 강화되면 교권이 약해지며, 교사 학생 관계의 개선이나 학교폭력 경감에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 강화의 긍정적 효과나 영향 즉 학교폭력 경감 및 교사 학생 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 학부모의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나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반면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인식은 교사 및 학부모의 절반 가량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학생인권 강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할지, 학생 인권 강화가 학교폭력 경감, 학교 관계 개선의 방편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학교문화로 학생인권 존중의 문화를 선택하는 비율은 학부모, 교사 모두 3%미만으로 지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여덟째, 학부모의 경우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 응답자 1500명 가운데 78.5%가 세계인권선언을 들어보았고, 65.7%가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헌법에 명시된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하면 학생인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이 학부모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생인권 제한에 대해서는 교사 학부모 모두 허용적이었다.

아홉째,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인권을 기초로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이 학부모 62.4%, 교사 55.2%로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교사 모두 교권이 학생인권, 학부모 참여권 보다 우선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권이 우선한다는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학부모 및 교사로 대변되는 성인들과 학생들의 인식 격차를 드러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권리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자칫하면 교육계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대상으로 권리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열 번째,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상호협력,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이라는 응답이 학부모의 35%를 차지하여 1순위였다. 그 가운데 특히 여자 학부모들의 경우 41.4%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을 들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문화로 학부모와 교사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60% 이상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의 80% 이상이 지지하며 선호하는 정책은 전문상담인력 확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 교실 확대 정책이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더욱 선호하는 정책은 청소년활동 활성화, 교사연수, 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프로그램 쪽이라면, 교사들이 보다 선호하는 것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의 제도개혁 정책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 우선 순위 결정 및 정책 실행 방안 모색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한다.

열한 번째, 인권조례 실시 지역과 비실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지도, 학생인권강화와 학교폭력의 관계 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거의 전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조례 실시지역의 학부모나 교사가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학생관계가 개선된다거나 교사의 교육권이 약화된다는거나 학교폭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데에 대해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인권조례실시가 학교폭력이나 교사학생관계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인권조례 실시지역의 교사는 ‘학생 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과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정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을 볼 때 인권조례 실시지역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정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에도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한국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의 일상적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의 근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폭력은 학교문화가 되어 버렸다. 언론지면을 장식하는 학교폭력, 자살 등의 사건들은 이러한 학교문화의 근저에서 간헐적으로 돌출되어 나온 것일 뿐이다. 폭력적 학교문화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저연령화되며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학교붕괴, 학교교육의 위기 담론 역시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의 학교질서에 의거해 교실수업을 진행하려는 교사와 이러한 질서에 본질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곧 학교교육의 위기로 명명되어 졌다. 정보화 시대 휴대폰 등 뉴미디어로 무장한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학생 간의 기존 질서, 유교적·권위주의적 관계를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교사 역시 변해 버린 학생 때문에 일어나는 교실의 무질서, 학생들의 저항에 분노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학생 개인과 학부모, 즉, 가정배경에 돌리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가장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예민한 교육문제이며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올해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하여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책은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학교폭력 문제에는 정보화 시대로의 문화변동과 청소년문화의 변화에 따른 학교문화의 지체 및 부적응이 내포되어 있다. 즉, 문화변동에 따른 새로운 세대의 학생과 기존 질서와 관념을 중시하고 있는 교사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통장애, 학교교육의 관료적 지배문화에 내재해 있는 소통의 어려움 등이 학교폭력을 구조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또래관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방관자이던 학생들의 또래관계는 어떤 한 지점에 서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내재화된 폭력문화는 또한 교사·학생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돌출적 행동을 하는 학생과 이를 힘과 권한으로 제압하려하는 교사 간의 충돌이 학교현장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충돌하는 무질서의 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가?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해결방향에 대해 교사집단 내, 교사와 학부모집단 간에 대립되고 있는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켜 학부모와 교사집단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사 집단 내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에 있어 매우 상반된 태도가 갈등하고 있다. 또한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간에도 학교폭력 해결방향을 두고 상당한 의식 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교사집단 내의 상반된 태도, 교사와 학부모집단의 의식 격차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가 한 방향을 보고 노력할 때 학생들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부모와 교사 간에, 교사와 교사 간에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대한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다. 학부모는 교사보다 학교폭력을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교사와 달리 가족과 학생 개인요인보다는 친구관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향으로 교사들은 학생처벌 등 지도권 강화, 경찰과의 연계지도 등 규제적 수단을 더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더 중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보다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상담 등 교육적 · 지원적 접근을 더 중시하며 가정 · 경찰과의 연계 지도에는 훨씬 소극적이다. 학부모집단은 교육적 해결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지도의 장애요인으로 교사들은 학생지도시간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는데 반해 학부모들은 교사의 소통과 교감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다. 학부모들로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교사들이 책임을 가정과 개인에 미루고 제도적인 보강만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격차가 교사집단 내부에도 있다. 학교폭력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교사들일수록 학교폭력 지도의 장애요인을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시간 부족’을 들고 있으며 대처방안에서도 ‘가정 · 경찰과의 연계지도’ 등 규제 수단을 강조하고 있고 바람직한 학교문화상으로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학교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을 학교폭력의 해결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일수록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를 더 중시하는 반면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에 대한 응답은 낮았다.

교사집단은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며 학부모집단과 문제해결의 궤를 같이하는 집단과 ‘권위와 전문성’을 기초로한 규제적 수단을 강조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해결방향

을 놓고 나타나는 교사집단 내의 이러한 분열은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폭력지도의 장애요인으로 입혀지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 10%의 응답자는 교사 상호간에 일관성 없는 학생생활지도방식을 폭력지도의 장애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어떠한 방향에서 대처해 나갈 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집단 간에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간의 충돌은 이러한 합의된 틀이 없이 각자의 입장만이 강조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대립과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편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깊이있는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범 국민 교육 소통기구로서 (가칭) 범국민교육 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고려해볼만하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계 현안에 대한 교육계의 갈등과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표현하는 등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의 여러 단위가 참여하는 반관반민의 협의 및 회의기구의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 등 성인세대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세대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 청소년 세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정해지지 않고 변화하는 무정형의 질서, 스피드 등에 친숙하며 외압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반항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추구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을 통제해야만 하는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를 철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이 지점에서 성인세대와 청소년세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유교적 · 권위주의적 가치관에 터한 공동체관은 어린 세대의 기존 질서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터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자 하는 청소년 세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폭력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저항을 교사들이 더 큰 폭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학교폭력문제의 본질은 학생간의 폭력적 관계문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관계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배려 받는 경험을 축적해온 청소년들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 학교폭력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두고 교육계는 마치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 학생인권

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해진다고나 학교폭력 경감이나 교사-학생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교사보다는 학생인권 강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은 교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문화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학생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부모집단 모두 학생 인권제한에 대해 허용적 태도가 강했으며 교권을 학생 인권보다 우선시 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인세대의 이러한 인식수준은 성인들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권리로써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학생인권의 강화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은 교육적이기 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한국사회 담론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민주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올바른 관계정립 및 권리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한국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육 주체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학교 구성원 상호간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질서가 새로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보편적인 이념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필요성에 기초해 학교구성원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성인 세대와 어린 세대의 권력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어린 세대의 인권은 정책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등 성인세대에 대한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강영혜, 이미라, 박성호 (2012). **학교폭력 조사현황과 과제** (OR2012-05-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김현철 (20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 시론적 고찰. **법교육연구**, 5(1).
- 문용린, 이승수 (2010).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OR2010-04-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200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RR2006-08-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2008). **학교폭력 지표 개발 연구** (RR2008-09-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7).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RR2007-09-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RR2007-09-0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한세리 (2006). **학교폭력 실태조사** (RR2006-08-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양건, 이성환, 김유환, 노기호 (2003).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OR 2003-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군현, 노종희, 신현석, 박남기 (2004). **교직사회 갈등해소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4-01). 서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 이민희 (2006). **학교 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RR2006-08-0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돈 (201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법·제도적 대응방안 고찰. **법학논문집**, 36(1), 165-19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 (2011). **중등학생 학교생활 실태와 가치관 학생조사, 중등학생 생활지도 실태와 교육관 교사조사**. 서울: 참교육연구소.
- 정미경, 박효정, 진미경 (200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연구** (RR2008-09-0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성, 유성상, 정병은, 김두년, 공석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해숙, 박성정, 구정화, 최윤정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조병인 (200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연구** (RR2006-08-0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11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2011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홍생표, 김진희 (2004).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연구 2004-02). 서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 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2. 교사 대상 설문지
3. 토론문

부 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학교 문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조사결과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02)2188-8804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02)3014-1016

선정 질문

선문1. 귀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2로 이동

② 없다 ⇒ 설문 중단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의견

※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응답을 하나만 골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 2. 학교폭력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표시)

- ① 신체폭행 ②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③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 ④ 집단 따돌림 ⑤ 언어폭력 ⑥ 위협이나 협박
- ⑦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피해 ⑧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
- ⑨ 모두 심각하지 않다

문 3.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 ②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
- ③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 ④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 ⑤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
- ⑥ 기타()

문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 ②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 ③ 가정,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 지도
- ④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
- ⑤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
- ⑥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 ⑦ 기타()

문 5.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서로 친하고 사이 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교사의 권위와 학생 지도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잘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는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개입하여 해결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사는 나와 잘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개선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늘어나고 교사의 교육권이 약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대리하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보다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교사의 학생 지도에서 교사의 결정권보다 학부모의 요구가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기초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 교사의 학교폭력 지도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
- ②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
- ③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 ④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
- ⑤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 ⑥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
- ⑦ 기타()

문 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 ②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 ③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 ④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 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 ⑥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 ⑦ 기타()

문 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급	①	②	③	④	⑤
2)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①	②	③	④	⑤
4) 교사의 학생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	①	②	③	④	⑤
5)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다룰 전문상담인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①	②	③	④	⑤
8)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9) 교사의 행정업무 감감	①	②	③	④	⑤
10)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①	②	③	④	⑤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배문1.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교급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배문2.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남녀공학 ② 남학교 ③ 여학교

배문3.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설립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② 사립

배문4.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배문5.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5.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교사 대상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선생님의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학교 문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조사결과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02)2188-8804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02)3014-1016/013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의견

※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응답을 하나만 골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 2. 학교폭력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표시)

- ① 신체폭행 ② 금품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③ 괴롭힘(심부름, 건드리기)
- ④ 집단 따돌림 ⑤ 언어폭력 ⑥ 위협이나 협박
- ⑦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피해 ⑧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
- ⑨ 모두 심각하지 않다

문 3.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 ②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
- ③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 ④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
- ⑤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
- ⑥ 기타()

문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 ②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 ③ 가정,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 지도
- ④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 활동 지원
- ⑤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
- ⑥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 ⑦ 기타()

문 5.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 학생들은 서로 친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 학생들은 나의 권위와 학생 지도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는 나의 학생 지도에 잘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생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개입하여 해결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부모와 잘 의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개선되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늘어나고 교사의 교육권이 약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대리하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보다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교사의 학생지도에서 교사의 결정권보다 학부모의 요구가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기초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 교사의 학교폭력 지도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 시간의 부족
- ② 교사로서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및 방법의 부족
- ③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 ④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위주 학교환경
- ⑤ 문제 학생을 전담하여 지도할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 ⑥ 교사 상호간 일관성 없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
- ⑦ 기타()

문 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 ②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 ③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 ④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 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 ⑥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 ⑦ 기타()

문 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급	①	②	③	④	⑤
2)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①	②	③	④	⑤
4) 교사의 학생상담 정례화 및 가정방문	①	②	③	④	⑤
5)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다룰 전문상담인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①	②	③	④	⑤
8)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9)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①	②	③	④	⑤
10)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①	②	③	④	⑤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학교 교급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배문2.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남녀공학 ② 남학교 ③ 여학교

배문3.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설립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② 사립

배문4.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배문5.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6. 귀하의 교직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 년)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전문가 세미나 토론문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문화 변화방안에 대한 토론

신 정 기 (한국교총 교권국장)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조사하여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책을 입안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자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교사 보다는 학부모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대한 견해이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은 실제 자신의 자녀가 처하고 있는 면보다는 언론매체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나 학급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측면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사에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시에 있고, 주변 학생들과의 면담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 결과로 인해 교사가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오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그동안은 또래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했던 부분들까지도 폭력에 포함되고 있음으로써 점차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는 높아지리라 여겨진다.

둘째, 학교폭력의 심각성 유형에서 학부모는 집단 따돌림을, 교사는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심각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대한 견해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언어폭력이나 괴롭힘 등은 가시적으로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또래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교사가 언어폭력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언어폭력이 결국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폭력(욕설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경청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요청하는 방법 등 매우 구체적인 언어순화 교육이 필요하다. 언어순화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정신적 피해와 심하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집단 따돌림을 교사가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대처방안으로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또래상답자’들을 육성하여 교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거나, 재량활동 등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서 교과시간에는 형성하기 어려운 학생들과의 신뢰감 형성 및 내면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학생지도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견해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경우 가정적 문제 및 부모로부터의 보호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정 불화로 인해 성격적으로 자존감 및 자신감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되거나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탈을 경험하게 되는 빈도수가 많아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등으로 학생들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지도 장애요인에 대해 학부모는 교사의 소통과 교감능력, 방법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사는 학생 지도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수업 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는 많은 업무들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 공문과 수업 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에 대해 교사들의 소통과 교감능력 부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은 실제적인 효과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어 교권이 약화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받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권은 강조되지만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학교는 끊임없는 분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자신들이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을 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다섯째, 학부모와 교사 모두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에게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어야 하며,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이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추가적인 업무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들이 일회성 행사나 추가적인 업무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역효과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5일제 수업이 도입 되었지만 전체 교육과정상의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은 조정되지 않아서 1일 수업시간이 늘어나 학생과 교사가 수업 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부족해졌다. 학부모와 교사가 바라는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5일제 수업에 적합한 전체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해야 하고, 학생과 교사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자문도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하거나 의뢰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학교현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학교의 5%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전문상담교사를 대폭 늘려서 대부분의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폭력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발달심리와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설령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도 학생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모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발달단계(자아정체감, 인지능력, 성역할, 직업인으로서의 발달단계 등)를 알고, 이성교제에서 부모되는 것까지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가정해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교폭력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의 인식차를 이해하고 왜 이런 인식차가 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문화 변화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화 변화 방안

이 영 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왔으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보다 응급처치식의 대응책이 양산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반응 또한 임기응변식으로 적응해오고 있다. 오히려 학교폭력 대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쟁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하여 처벌 위주에서 인권 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 바와 같이 교사, 학생 및 학부모까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본 보고서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의 공동체적 문화를 회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경감하자는 연구목적으로 기획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경감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모습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학부모 60.4%, 교사 61%)를 선택했고,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88.5%가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학생 인성증시의 학교문화(학부모 13.2%, 교사 10.6%)도 학교폭력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교사집단의 인식 결과를 토대로 학교문화 회복을 위한 우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최근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39.4%), 학생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19.9%)를 꼽고 있다. 이것은 국제 경제위기와 승자독식의 경쟁논리에 따른 빈곤 가정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전교조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중2실태조사(2012.7.5.~7.17, 1906명, 신뢰도 95 ± 2.2) 결과를 보아도 자아긍정성과 행복지수, 미래의 자기실현에 대한 항목 등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 가정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배움으로부터 도망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것처럼 차별 없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와 학업성취육이 낮은 학생들(다문화가정, 빈곤가정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로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과 전문상담인력 배치, 대규모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약 48.6%로 응답하였고, 학부모의 6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교사들의 경우 학생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 피드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생과의 관계 인식은 학생들 간의 친밀도 74.5%, 학생들의 교사 지도권 인정 65.8%, 학생문제 개입과 해결 86.6%, 학생인권 인식 60.0%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지도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학생지도 시간의 절대적 부족(37.0%), 입시위주 및 지식 중심의 수업환경(15.8%), 전문상담교사의 부족(10.4%)을 느끼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다양한 학습요구를 수업을 통해 실현하고, 체험활동 등 협력적 공동체생활을 통한 인성교육 및 맞춤형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의 교사집단은 입시중심의 교과(지식) 교육과 중앙집권적이고 관료화된 학교운영체제 속에서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약, 수평적인 의사결정과 협력적 학습공동체 문화의 부재라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집단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정도는 매우 낮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학벌사회와 서열화된 학교구조, 성과급과 교사평가, 학교평가 등의 경쟁논리에 따라 피로와 스트레스 증가 등 정신 심리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교사집단 스스로의 집단적, 협력적, 수평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21세기 교육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지식중심의 전달교육에서 학습자의 인성, 지성, 신체적 활동, 문화·예술적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협력적 집단지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인지영역 학습이나 전통적인 학습심리학을 뛰어넘어 학습에서의 정서의 중요성, 사회적인 협력, 과도한 스트레스의 위험성, 위협적인 수업분위기의 위험성 등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참여를 배제한 채 처벌식 접근이나 인과응보식, 문제해결식 접근법을 시행할 경우 폭력은 내재화되고,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징벌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지도의 철학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교육과 학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교사 집단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전문성과 소통능력, 배려와 돌봄의 공동체로 학교를 혁신해야 한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학교문화 변화방안’에 대한 세미나 토론문

박 범 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1. 시작하며

이번 연구는 ‘학교 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적 학교 문화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에게 동일한 설문을 제시하여 조사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보았다. 아울러 교과부가 학교폭력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기초 조사에 근거한 방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하는 기회도 되었다. 이 연구가 공동체적 학교 문화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교과부 및 관련 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공조체계, 지속적인 연구 심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와 발표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토론자가 관심 있게 살펴 본 몇 가지 설문 중심으로 간략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2.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의견

이번 설문 조사 결과 학교폭력과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주요 인식 차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폭력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이는 교권과 학생인권 개념의 충돌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을 통해 통상적인 교육제도 및 교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투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과 학교의 요인을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교사 두 집단 모두 학교폭력 발생의 요인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도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학생지도의 장애요인의 응답이 현격히 다를 수 있다.

토론자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두 집단의 속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학부모는 이 설문에서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32.4%),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26.0%),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유해매체 영향(18.3%)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39.4%),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19.9%),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16.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가정도 문제이기는 하나 가정 이외 요인을 매우 크게 보았다. 이는 자녀를 신뢰한다는 것이기도 하나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긍정평가, 객관화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 응답에서 특이점은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다. 교사가 학교성과와 친구관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상태를 학부모보다 조금 더 인지하는 것인지, 학교 폭력 요인이 교사 혹은 학교가 아닌 학생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교사 모두 교육 이외 사회현상에 책임을 묻는 태도라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자녀가 가/피해자 상태가 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세우기 어렵다. 교과부의 대책에서 밥상머리 교육과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은 가정교육, 학부모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학부모가 가정환경과 부모의 무관심을 학교폭력 요인 1순위로 꼽은 것은 이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자기반성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학부모가 자녀와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이며 교육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답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밥상머리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주문이다.

한편 두 집단 모두 학교폭력 요인 중 입시위주 교육정책 탓이라는 응답 순위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실제 경쟁 교육이 심각하지 않아서 이러한 응답을 한 것인지 수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과 서열의 압박이라는 분석이 학부모와 교사 일반의 정서와 분리된 것이라면 학교폭력 원인과 대책 마련에서 입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 오히려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 학교문화가 당연시되어 버린 심각한 상태, 무감각 상태가 아닌지 역으로 질문해 봐야 한다. 입시를 위해 오늘의 인권을 보류하고 주지교과 이외 다른 과목, 다른 영역을 배울 때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미뤄야 하는 학생들이 입시 부담을 느끼지 않는지 직접 물어야 한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 설문을 근거로 학생 시각의 진단과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는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이외 학교-교사-학부모가 소통하는 구조 및 학교 운영에 참여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학부모는 교사가 소통하고 교감하는 능력과 방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상호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학부모는 처벌보다는 소통을, 교사는 학생 처벌 등 지도권이 강화될 것을 1순위로 원한다. 학부모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교사와 현격히 다르다. 이는 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혹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관된다.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성으로서 교권, 학생지도권한, 그리고 학생인권의 문제가 교권조례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압축되어 갈등하고 있음이 이번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권고했으나 교과부에서 이번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교과부가 학생이 인권을 배우고 자각하기를 두려워하는 속내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힘(권력)아래 학생의 순종을 존속시켜 고분고분한 국민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3. 마치며

이번 연구는 많은 부분 두 집단의 선호 응답이 다르다. 그럼에도 ‘바람직한 학교문화 상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정착’이라는 것에는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응답에서 향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정책이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은 처벌위주이다. 하물며 보수학자와 언론에서 조차 인성을 계량화하며 업무실적 중심이라는 비판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개선하라고 했다. 학교폭력은 사회폭력과 가족 해체, 생명존중 지수 감소 등 원인의 순차를 매길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교육 주체 안에서 문제 해결의 축을 세우는 교육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 사법조치는 범죄로 여기기보다 선도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가 사법의 대응은 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이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폭력과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조사-학부모입장

서 인 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

학교폭력과 학교문화에 대한 용어정의를 먼저 하고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학부모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학교폭력이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점에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학교폭력도 일종의 학교문화로 간주해야만 올바른 학교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과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 문항 중에 교사의 지도 소홀 등 학교의 역할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학교폭력과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밥상머리교육 등 가정의 역할만 강조하는데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 학교 역할이 증가되고 있어 학교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 영향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접점을 찾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정착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1순위를 두었다는데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다고 본다.

먼저 이 보고서의 결과 중에 학교폭력을 학생인권 강화 및 교권 추락과 연관시키는 내용에 따르면 교사는 교권강화 차원에서 지도권을 말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능력 차원에서 소통능력과 방법을 강조한다. 교사입장에서는 외부적 힘을 통해 권위를 세우려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내부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차이는 있지만 관건은 교사인데 교사의 능력이 신장되면 교사의 권리인 교육권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보며, 생활지도도 교육권과 함께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가 교육목적이 아니라 처벌과 규제로 규정된다면 학생들의 반발과 물리적 행동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이는 학교폭력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이 강화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 및 권리가 향상된다면 예방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역할수행 및 권리갈등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이 권리갈등 관계라는데 적극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인권 강화에 대해 학부모의 경우 학교폭력 경감(33.4%)에 비해 그렇지 않다(33.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교사들은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 경감(18.6%)에 비해 그렇지 않다(45.3%)가 3배 정도 차이가 나 학생인권 강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인식은 교사(54.1%)및 학부모(46.0%)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제로섬으로 잘못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과 학생인권, 두 권리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장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절반 가량이 학생인권 강화는 교권 약화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로서 소명의식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일부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교권이 실추된 경향이 있으나 교권은 학생인권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인권을 강조하다보면 침해받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게 되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대립구도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또 ‘학부모의 경우 학생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학부모가 2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세계인권선 언이나 헌법에 명시된 인권에 비하면 학생인권에 대해 이해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조사결과는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강조하였지만, 실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은 권리에 앞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상호작용 하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학교문화로 학생인권 존중의 문화를 선택하는 비율은 학부모, 교사 모두 3%미만으로 지극히 낮게’ 조사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강화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은 인권이 없거나 침해받았기에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고, 상대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잠재적 인권침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언적, 상징적 차원을 넘어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을 학생인권조례 안에 나열함으로써 존중이 아닌 대립으로서의 인권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교육공동체로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문화형성,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신뢰관계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학교문화를 만드는 장본인은 학생과 교사의 긍정적 관계이다. 교육공동체 간에 배려하는 바람직한 학교문화가 형성된다면 학교폭력도 경감되고 학교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이 갈등할 경우 학생인권을 기초로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이

학부모 교사 모두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교사 모두 교권이 학생인권, 학부모 참여권보다 우선한다. 학부모 및 교사로 대변되는 성인들과 학생들의 인식 격차를 드러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조사에 대해 이는 학생인권은 성인 기준으로 규제되고 규정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지만 학교규칙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정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상응하는 통제수단도 학생 스스로 정하도록 한다면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가능할 것이다.

‘권리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육계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권리교육이 중요한 만큼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인권 제한에 허용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학교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에는 자신의 인권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교육으로 일상화된 거친 욕설의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이 폭력이 된다는 걸 강조해야 한다.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의 80% 이상이 지지, 선호하는 정책은 전문상담인력 확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정책이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 학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의 기본 인성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학생에 대한 책임도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함께 학생을 키운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부모소환제로 명명한다면 책임소재가 학부모가 원인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부정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학부모도 자녀교육의 책임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아울러 권리도 함께 강화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활성화, 교사연수, 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방향

김 철 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I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하였음
- 종합정책권고는 5개 영역 20개 분야에서 52개의 정책을 제시함. 5개 영역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학교 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및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활용 등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등 20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음
-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의 공동체적 문화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한 “학교 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는 학부모-교사간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방안을 찾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 예상한바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폭력예방 방안, 학교문화구성을 위한 학부모-교사 역할에 평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번 조사는 밝히고 있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의 내용 중 본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문화조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1.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육적·치료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학생도 사회보호를 못 받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문제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함.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개별적 고려와 존중이 처벌대응보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임. 학교에서 격리된 청소년의 비행 증가는 또 다른 폭력의 재생산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학교로부터 분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재학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여 학교나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의 확충이 필요함. 예컨대 가해자 학생에게는 갈등해결, 분노조절, 비폭력대화 등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도록 전문가 및 복지공간을 연계해주고, 피해자 학생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시설이나 대안학교를 연계하는 것이 요구됨
 -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안정적 학교 복귀 등을 위한 심리치료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가해 학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 치료도 필요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치료적 교육도 마련되어야 함.
 - 더불어, 피해학생의 경우도 가해학생과 같이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도 죄책감, 분노 등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이에 상당함.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부모 모두에게 부모역할지원, 부모상담, 가족치료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2. 학교폭력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학교폭력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 중 하나이며, 가장 인권적 문제임. 특히 인권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큼.

- 학교폭력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존중을 돌려줄 수 있는 것임
- 또한 학교폭력 현상의 저변에는 학생들 간의 권력에 따른 차별의식이 존재함. 학교성적, 가정경제, 성별, 인종, 거주지역, 장애유무 등에 따라 일상적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 따라서 어릴 때부터 아동의 발육과 인지능력 발달 정도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자세,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자각을 지향함
- 학교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류공동체를 인식하는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인권에 대한 진정한 의식과 바람직한 태도, 즉 자기보다 약하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도우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자세를 기르는 일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 오늘날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상당히 방지될 수 있었을 것임
-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소통’과 ‘배려’를 이야기 하지만 무엇을 위한 소통이고, 무엇을 배려하자는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함. 무조건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함을 인정하고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배려이고 소통이 되어야 구체성을 가지게 될 것임.
 - 배려의 내용으로 생명존중, 사생활보호, 표현자유 등을 제시하였을 때 배려는 구체성을 갖게 되고 실천력을 갖게 될 것임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으로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나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및 활용 등이 효과적 방안일지라도 이를 적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생활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3. 교육 주체의 역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학교중심적 해결방식 접근 필요

-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서 청소년과 학교가 주체가 되고 외부기관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 학생을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 조성의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의 문제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학생들이 교내 생활규범 제·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학생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성화가 이루어져 학생이 학교 내 자기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율적,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학부모의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문제가 되는 통념 중 하나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다”는 인식임. 비폭력적 사회 분위기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통념들을 재고하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외의 폭력에 대해 전방위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음.
 -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원이 학부모에게 면담·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문제 참여에 있어서 부모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예컨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수의 학부모를 고려해야 함.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인 학부모의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교원이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교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원은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함. 또한, 교원은 교육활동 및 근무관계에서도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
 - 다양한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학생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중심적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의 접촉 기회를 증대하고 상호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교원 확충이 필요하며,

교원이 교과교육 및 학생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전담교원제도나 대학과 같은
행정제도 도입 등 행정·잔무 경감제도의 추진이 필요함

Ⅲ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과 함께 교육적·인권적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우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폭력 지향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통제를 위한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음
- 평소 학생이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에 민감해지도록 교육받고, 소통과 공감, 갈등해결의 능력을
키워 공동체를 회복할 때 폭력에 대한 자정능력이 생길 것임.
 -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이 아닌 보호를 제공하고 어떠한 폭력이든 수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임.
 - 인권적 관점에서 ‘보살핌(care)’이 있는 정책을 통해 학교폭력의 갈등을 다룰 때 학생, 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접근이 필요함

‘학교 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에 대한 토론문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학교 폭력이 우려할 정도로 존재하고 당연히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언론과 교과부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즉물적이고 과잉사법의 폭력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5점 척도화 했을때 평균 2.63점을 나타내어 학교폭력을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남자 교원이(2.68)이 여자 교원보다(2.57)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27/67)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은 보통 이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체 평균은 약 3.72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학부모(3.68점)보다는 여자 학부모(3.78)들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67)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집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학교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증폭이 일어났다는 증거이다. 성별로는 남성 교원과 여성 학부모가 심각 정도가 높다. 최근 학교 폭력과 주폭(酒暴)의 ‘새로운 재발견’과 ‘과도한 폭력성 재인식’은 국가 ‘폭력’의 광범위한 개입과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28.3%)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배치(22.7%)와 연계지도강화 (17.8%), 교육정책 전환(15.1%)이 학교 폭력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 활동지원이나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는 학교 폭력 대처 및 예방 방안으로는 높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교사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높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권한이나 업무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는 현실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다.”(38/67)

2.

학부모와 교사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

“학부모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학부모의 비율이 24.2%에 그치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자도 55.8%에 달해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22/67)

특히 보수 언론의 공격에 의하여 학생인권 하면 두발, 복장의 자유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의 전체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배양되는 환경의 개선에 학생인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내지 제32조는 학생, 교원, 보호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행은 전문직체계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관련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단기 대규모 지식주입식’의 교육행태가 되풀이된다. 이마저도 유행처럼 한차례 인권교육 열풍이 불고 난 다음에는 사라졌다.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인권교육 교사 단체와 인권 단체가 함께 준비하여 제공하는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3.

학부모와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고민하지 않는다.

“정책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5점 척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부모 소환제 등을 포함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였다. 5점 척도 평균 4.55점으로 상당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도 94.8%에 육박하였다.”(48/67)

‘책임 몰아주기’ 그것은 ‘집단에 대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다. 학생에 대한 책임인 교사에게 쏠린다. 학교관리자와 교육청 그리고 교과부는 뒤로 빠질 뿐 아니라 교사를 압박한다. 학생보호자는 그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학생만 다그치던 교사들이 이제는 학생보호자와 공동책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관료는 ‘전시행정의 무한재방’과 ‘정책 돌려막기’ 및 ‘책임자 돌려막기’ 그리고 ‘꼬리 잘라내기’에 골몰할 뿐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3항은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원인과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학교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8조 제4항은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학습권은 교실에서 학습활동에 한정되어 이해된다. “학생의 인권 제한 대해서는 학부모의 60.4%가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5점 척도 평균도 3.51에 달하여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생집단 간의 권리 충돌시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교권에 우선한다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반응 평균이 2.8로 낮고,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25.4% 낮은 편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로서의 학생 인권의 성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2/67)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현행 입시체제 아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학생들이다. 소수의 그러나 어느 정도 그 결과가 예정된 ‘엘리트’ 학생 선별에 둘러리 구실을 할 뿐이다. 학생인권과 충돌된다는 교권 또한 소수 학생을 위한 교권일 뿐이다. 획일적인 교육 과정의 강요가 아니라 학생의 의사와 흥미 그리고 최상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 없이 배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5.

학부모와 교사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가? 주입식 수동적·소극적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기초하여 주체적·능동적·적극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협동적으로 실천하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이다. 아동청소년기에 성숙할 틈이 없었다.

6.

학생인권에 대한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목록과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인권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관계에 대한 효력 인정 그리고 학생의 공적 생활에 대한 권리로의 인식 확장,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모색하는 학교생태계적 접근이 요청된다. 그것이 학생인권이 교권과 결합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학교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교 폭력의 배양 요건을 감소시켜 가는 길이다. 학교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가 국가주의 교육체제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 토론문

우 지 향 (원묵고, 상담교사)

【자료분석에 대한 의견】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문화 향유 실태에 대한 조사 보완 필요

학교문화 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학부모-교사의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와 더불어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의 삶의 양태를 조사하는 것을 통해 학교문화 변화에 대한 정책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 인식조사 문항지 하위요소들이 상호보완적이며 중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그 하위요소로 ‘상호협력, 배려의 공동체’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 중시’ ‘학생 인성중시’ ‘학생 인권중시’ ‘민주적, 참여적 의사결정’ ‘가정 및 관련기관의 참여와 협력’ 등으로 제시되었는데, 과연 이 요소들이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의 하위요소로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문항 중 ‘학생지도권 강화’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 등이(p17) 같은 비중의 하위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학생들의 인식조사 보완 필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와 역할수행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격차가, 만약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관계에 대한 학생과 어른 사이의 인식 격차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소통과 배려의 교육공동체 문화의 형성 기반은 너무 허약해 질 것이 때문이다. (p61)

【교육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

■ 학부모 및 가정환경의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정책지원 필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모두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p11-16, 34),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접근형식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가정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학부모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

■ 인성교육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세밀한 정책안 필요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이 낮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제대로 지도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학부모 전체집단에서도 그다지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일수록 더욱 지지받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p20)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의 그 실체가 모호한 가운데, 오히려 역행해서 권위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훈계중심의 예절교육으로 왜곡될 위험도 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가 왜곡된 인성교육 중시 정책으로 관계가 더 왜곡되고 소통의 부재현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일 것이다.

불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요동치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이고 훈계중심의 인성교육보다는 청소년시기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심리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친구의 마음을 들어주는 방법, 학생과 교사의 소통법, 부모와 자녀의 소통법들이 더 우리의 현실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전제된 폭력사안 처리방침 중요

학부모 인식조사에서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평균은 높으나 소극적인 반응 비율이 21%에 달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p24-25)

관계회복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같은 교실에서 지냈던 급우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관련 문제가 나와 동떨어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방관자 학생에 대한 교육도 가능할 수 있다.

■ ‘관계맺음’에 대한 성찰 프로그램 필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처벌 등 교사들의 지도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학부모들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p56)

학부모와 교사 모두 88% 이상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관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실마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p60)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들의 공통점은 ‘관계맺음’에 대한 왜곡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관계맺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힘의 논리 즉 양육강식의 논리와 연결될 때 학교폭력의 양상으로 급격하게 확대된다. 이런 관계맺음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부족은 학생들 사이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상급자와 하급자, 성인과 청소년, 장애우와 비장애우, 소수자집단과 다수집단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문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서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기민감성 교육 강화

학부모, 교사 모두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폭력유형과 이에 대한 인지기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대상 교육의 형태도 집체식 강의보다는 체험형, 프로젝트형, 교과수업연계형 등으로 다양화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비물리적 언어적 폭력 유형이 지배적이라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더욱 심각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유형의 학교급별 차이는 이후 학교 폭력 대책이 학교급별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준다.(p31)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폭력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초등은 비물리적 언어적 폭력사안 대응정책으로, 중고등은 물리적 폭력사안 중심으로 하는 학교급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 학교폭력과 예방책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에 대해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는 것은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학교폭력을 여자 학부모인 어머니 쪽이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에 비해 남자 학부모는 괴롭힘, 위협이나 협박,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 폭력에 민감하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9) 남자 교사들은 교사의 학생 지도권 강화(33.3%)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자교사는 전문인력 배치(27.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p39)

학부모나 교사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학교문화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남녀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은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사회, 약육강식의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 속의 교육문제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폭력인지에 대해 덜 민감하고 허용적인 남성중심의 관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환경 조성

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28.3%)라고 응답하였다. (p39) 교사 연수 강화(3.84), 청소년활동 활성화(3.82), 학교 폭력 예방프로그램 보급(3.81) 등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서 단골로 강조되는 정책들은 보통이다 수준의 반응을 얻고 있다. (p49)

교사들의 학교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교육환경의 변화임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학급당 인원수의 축소나,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직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전문상담인력 증원에 대한 세부정책 필요 : 인력의 질, 초등배치, 정책의 일관성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의 80% 이상의 지지하며 선호하는 정책은 전문상담인력 확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 교실 확대 정책이었다. (p67)

전문상담인력의 확대에 있어서 세밀한 정책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급속히 인력을 확대배치하려다 보니,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질과 업무권한을 보장하지 않은 채 양적인 확장만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학교상담 전체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채 하향평준화 되어 '상담인력을 배치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식의 평가를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불 필요가 있다. 학교상담이 양질의 내용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확대, 학생수 비례 전문상담인력배치, 초등학교 확대배치 등이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진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과장
김형욱 경기도교육청 · 학생인권옹호관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수석부회장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 교육실천위원장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 대표
송두록 서울고등학교 · 교사
신정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권국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우지향 원곡고등학교 · 상담교사
윤소영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근절과장
이영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 소장
이유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수시과제)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연구

인 쇄 2012년 10월 30일

발 행 2012년 10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231-9(93330)